

# 協平國舞

'96/2 통권 제33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또 다시 당신 앞에

이 해 인 수녀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의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뒷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 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이 죄인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 관대했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없이 행동했고  
절제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결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십일 만이라도  
거울 속의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사십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송이의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한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재의 수요일 아침  
사제가 없어 주신 이마 위의 재처럼  
자디난 일상의 회색빛 근심들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에 눈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히게 하소서

맑은 성수를 찍어  
십자를 긋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뛰어 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여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 평협회보

## 권두언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이관진 베드로 2

## 목자의 가르침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살고 있는가?” .....김수환 추기경 3  
“정의와 양심을 지키고 하느님 일에 충실하자”.....정진석 주교 8

## 특집-새로운 복음화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를 위한 노력 .....최기산 신부 10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심상태 신부 16  
새로운 복음화와 한국교회.....김유철 신부 28

## 통일논단

보물섬으로 가자.....양성일 F. 살레시오 39

## 생활말씀

나머지 99%는 하느님께서.....끼아라 루빅 49

## 인터뷰

이관진 회장에게 듣는다 .....52

## 평협소식

.....54  
광주 평협 자료 1 .....69  
광주 평협 자료 2 .....72

## 1995년 평신도 주일 강론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78

## 공명선거 캠페인

6·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82

## 도덕성 회복 캠페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83  
광복 50주년 발표문 .....85

## 신앙의 샘

천주교 신자가 된 부담.....김세베리노 88

## 짧은 소설

어두운 고해.....최 현 베드로 90

## 거룩한 생애/그리스도의 증인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어”  
.....최홍준 파비아노 96  
전국평협 임원 주소록.....101

### 〈표지 설명〉

광주대교구 임동  
주교좌 성당 전경

##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다짐하며

이관진 베드로  
전국평협 회장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태 7, 21)

저는 지난 4년 동안 서울과 전국평협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위의 복음 구절을 곱씹어 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부터가 하나의 길이었으며 본당과 교구, 또한 전국 평신도 단체의 선두에서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불림을 받은 것 자체가 그분의 뜻이었음을 깨닫고는 “저는 요만큼 밖에 힘이 없사오나 나머지는 당신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고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나는 이제와서 돌이켜 볼 때, 과연 ‘하느님의 뜻’을 얼마만큼 실행에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가 다시 주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면서 옳은 길을 걷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일지라도 하늘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동해서 이룩 이룩한 선(善)으로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제 임기중에 한국 평협이 발족 25주년 은경축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중점을 두면서 우리 상품 쓰기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와 첫번째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에 관한 인식을 높인 것은 큰 수확이라 여깁니다.

이 모든 일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다음 일은 다음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이고,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어 ‘하느님의 뜻 자체’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이 떠오릅니다.

2천년대를 4년 앞둔 오늘의 한국 교회는 복음화 운동 등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실제로 하는 일도 많아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평협〉 이번 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대 사회발언과 정진석 주교님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학자 신부님들의 글과 통일문제에 따른 평신도 논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펴내지 못하는 책이지만 이 기관지가 이 땅의 복음화와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살고 있는가?”

김수환 스테파노  
서울대학교 교구장·추기경

이 글은 1995년 10월 30일 조선폰텔에서  
있는 김수환 추기경의 연세대 행정대학원  
초청 중요 특강 내용이다.

저는 한 20년 전에 연세대에 초대되어 Chapel 시간에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그 때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요, 사상가인 Bernar Shaw<sup>1)</sup>와 정신박약자가 같은 배로 대서양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 배는 파선(破船)하여 침몰하고 이 두 사람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구명대는 1인용 하나 뿐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살아 남아야 하느냐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 남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판단할 사람은 Shaw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自身)이라면 누가 살아 남아야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던지는 것은 이 질문의 답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정반대(正反對)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는 온통 전직 대통령의 권력

형 축제 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적 공분  
에 싸여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참담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또는  
그 이전에 연이어 있는 대형사고를 만  
크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의 비서실과 홍보담당 신부에게는 매일  
같이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수없이 전화가  
걸려 옵니다. 추기경은 이럴 때 무언가를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에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문, 방송이 할 말을 남김없이  
다하고 있는데 저까지 같은 소리를 더 보탬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  
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나오게 되니  
무언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교회에 속하는 안토니 Bloom 대주교님이  
쓴 책 “기도의 체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아직 신부일 때 어떤 분이 Bloom  
신부님을 찾아가서 “하느님을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는 당신께

1) George Bernard Show(1856~1950)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평론가

하느님을 뵈옵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뵈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당신께 엄청난 위기(Crisis)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시면 진리 자체, 정의 자체이실 그분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지고 그것이 곧 당신의 전 생애에 대한 심판이 될 테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느님을 뵈고 싶다면 저는 당신이 하느님을 뵈올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은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 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대목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이십니까? 예수님처럼 깊은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그 간음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까? 비록 간음한 여인이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써 용서를 받으면 다시금 깨끗하여지고 아름답고 결백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간음한 여인입니까?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떨려 고개도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곧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 앞에 전전긍긍 하면서 지은 죄를 마음 깊이 뉘우치고 하느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그 여인입니까? 그만큼 당신에게 스스로를 뉘우치고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 자부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고 고발한 바리사이파 사람입니까?”

그 남자는 Bloom 신부의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여인에게 기어이 돌을 던졌을 가장 젊은 유태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시고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섰을 때에는 거기에는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Bloom 신부에게 온 남자는 자기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기어이 돌을 던졌을 가장 젊은 유태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끝까지 엄격한 법집행(法執行)을 요구한 철두철미한 정의파(正義派)라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그만큼 냉혹한 용서의 마음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Bloom 신부는 “그런 마음으로는 진리 자체, 정의 자체이시면서도 사랑과 용서 자체이신 하느님을 뵈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뵈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위기입니다. 즉 진리와 정

의 자체이신 그분 앞에 나설 때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누가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한다고 보여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회상하게 된 것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노태우 전대통령을 이 시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지금 간음한 여인의 그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분을 느끼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과 신문, 방송들은 당연히 하여야 할 말들이겠지만 비난의 채찍과 돌을 던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로 쳐라” 하신 말씀을 지금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여야 정치인들이 그 말씀을 깊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들은 썩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참으로 깨끗한 정치인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력이 오랜 사람일수록 한국적 정치 풍토 속에서 청렴결백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않고를 떠나 정치인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썩은 정치 비리 앞에 공동책임(共同責任)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노태우씨는 참으로 누구보다도 앞서 모

든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숨기고 미루고 할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 대국민 앞에 하신 사죄의 말씀 중 국민이 내린 어떤 벌도, 어떤 돌팔매도 받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 속죄하는 마음을 실제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은 현재의 양심의 가책과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과 빈 마음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줄 수 있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법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세력(政治勢力)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치인들은 노태우씨의 정치비리를 단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패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이 땅에 만들어진 데 대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참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땅에 그런 권력형 정치 비리는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깨끗한 정치 풍토를 숭선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양상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당리 당락에 또는 개인 인기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 상처내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대국적인 정치를 펴는 모습은 어느 정당에서도, 어느 정치인에게서도 언뜻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총선과 그 후에 올 대선을 위한 고지점거(高地占據)를 이

기회를 이용하여 누가 먼저 하는지 앞다투는 이전투구의 그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엄청난 정치 비리와 연속적으로 일어난 충격적인 붕괴사고 그런 것이 어찌하여 이 땅에 거듭됩니까?

그 모든 것이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하여 지혜를 모아 난국(難局)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데 그렇지 않고 서로 더 다투기만 하는 것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정신박약자와 Shaw, 이 둘 중 누가 살아 남아야 하는가? 여기에 답은 물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Shaw가 살아 남아야 한다와 정신박약자가 살아 남아야 한다입니다.

첫째, Shaw가 살아야 한다. 왜? 정신박약자는 무용지물이다. Shaw는 더 많은 작품으로 인류 문명(人類文明)에 더 공헌할 수 있다.

둘째, Shaw는 스스로 희생되고 정신박약자를 살려야 한다. 왜? 그럼으로써 보여준 그 인간애는 (Shaw의 과거, 현재의 작품, 미래에 쓸 어떤 작품보다도) 인류 세계에 더 공헌할 수 있고 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은 오늘의 이기적 인간사회에 불멸(不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 중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서 있습니까?

전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엘리트

사회관입니다. 그러나 약자의 생명을 짓밟고 살아난 쇼우의 인생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쇼우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정신박약자를 밀어내고 구명대를 차지하였다라면 그 사람의 인품은 무엇입니까? 그가 글로써 말한 인간애, 인본주의, 이런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어찌면 우리 인간 모두가 원조로부터 받은 본능적 약함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 우세하면 그 사회안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고 정신적(精神的)으로나 육체적(肉體的)으로 약한 자, 사회 발전에 구체적인 이바지를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더 연장(延長) 시키면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병약자, 불구자, 노쇠자 등 모든 약자는 제거(除去)되고 건강한 자, 두뇌가 우수한 자, 국위선양(國威禪讓)을 할 수 있는 운동 선수, 과학자, 기술자, 저명한 학자, 경제가, 재벌, 힘센 자, 한 마디로 권력자(權力者), 금력자(金力者)들만이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약자는 도태 되어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 즉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극도로 이기주의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추구하는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물질문명입니다. 고도의 물질문명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짓밟고 인권(人權)을 유린해도 관계없는 물신주의적(物神主義的) 문명입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 병약자, 불구자들이 설 땅은 없습니다. 그곳은 인간애라고는 없는 무정한 사회, 인간다운 정신(精神)과 혼(魂)이 없는 사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모두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살고자 약자를 무시하고 또는 밀어내는 이런 가치관에 지배되고 있다 해도 그 표현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구체적 예로 장애자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리 사건과 대형사고, 붕괴사고가 이 땅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관 전도 또는 부재(不在)에서 옵니다.

인간보다는 돈이나 권력을 더 추구한데서 그 결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에서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도 없고 양심이나 정직과 성실이 결핍된 데서 이런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정신박약자를 살리기 위해 쇼우가 자기 희생을 하는 가치관, 비록 우리 자신이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가치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살리는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사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병든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利己主義), 물질주의(物質主義),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책임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과 회개가 진실되고 깊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 인간애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 명실공히 세계를 향하여 열린 사회, 밝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의와 양심을 지키고 하느님 일에 충실하자”

정진석 주교  
청주교구장

다음은 95년 6월 23일 청주에서 거행된 사제서품식에서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가 선포한 강론 내용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련한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당신의 성자를 구세주로 파견해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수난공로를 세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사업을 세상 마칠 때까지 계속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성직계급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제와 부제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느님의 말씀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죄악을 하느님께 품신하여 우리를 영신으로 이끌어 주는 중재자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중재가 없이는 하느님의 노여움을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범하는 죄는 하느님께 직접 용서 받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임무를 세상 마칠 때까지 수행하도록 성직계급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품을 받는 성직 후보자들은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축성된 사람이 됩니다. 축성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봉헌하여 하느님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직 후보자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느님께서 그 봉헌을 기쁘게 받아 들이시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중재자이니 만큼 하느님의 임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들의 죄 많은 인간을 하느님 앞에 인도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영생의 말씀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집을 지킵니다. 하느님의 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찬미를 받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원하시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마침내는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인 성당입니다.

성직자들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  
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  
를 목숨을 바치고 지킵니다. 성직자들은 성전  
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뜻을 여러  
사람 앞에 자기 자신들의 몸을 땅에 댄으로써  
하느님께 봉헌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거룩한 집  
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집은 사람이 하느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  
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죄가 많고 불완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정의가 실  
현되기에는 불가능한 까닭에 정의의 심판자이  
신 하느님 앞에 각 사람이 마음 속에 품은 억울  
한 사정을 호소하는 곳이 성역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완전할 수도 없고 잘못  
을 아니 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  
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만드는 법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이 만드는  
법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주만물  
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질서 중에 사람이 깨  
달은 한 부분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어  
느 인간이 만드는 법보다 더 완전하고 더 우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식했다는 점에  
서 불완전한 인간의 인식능력 때문에 자연법은  
그만큼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  
의 완전한 법을 인간의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  
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

다.

인간이 만드는 법보다는 자연법이 훨씬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 자연법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의 권력자가 제정한 법이 아  
닙니다. 그 양심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은 그 나라에  
서만 통용이 되는 법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인  
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이 만드는 법이 양심보다 더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이세 성인은 억울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  
하소연할 때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  
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습  
니다. 모이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섯  
개의 도읍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오늘날  
성당, 성역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에 죄인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인의 죄를  
사제가 감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정  
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억울한 재판을 받  
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을 받을 때 처벌당하는  
것은 우리가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  
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그 가련한 인생을 하느님의 권능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성당에 들어  
온 죄인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에 들어온 죄인이 확실하게 정의로운 판단  
을 받은 다음에 죄인이 될 때 그 죄인은 당연히  
(15 쪽에 계속)

##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를 위한 노력

최기산 신부  
인천 가톨릭대학 교수

### 편집자 노트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이즈음,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펴내고 있는 <사목> 잡지는 1996년 1월호에서 '새로운 복음화' 특집을 마련한데 이어 2월호에서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반성과 쇄신'이란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낸 바 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한국평협> 회보는 더 많은 신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기산 신부(인천 가톨릭대학 교수)의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를 위한 노력'과 심상태 신부(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장)의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그리고 김유철 신부(대구 효성 가톨릭대학 교수)의 '새로운 복음화와 한국교회' 등 3편의 옥고를 전재한다.

### I. 글 머리에

미국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교회의 조직'이란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강사는 미국의 교회가 성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색 주장을 폈다. 참으로 역설처럼 들리는 그의 주장이 논제에 조금은 부합하리라 여겨지기에 그의 주장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교회는 성직자가 많고 성소자가 많아서 평신도들은 구경꾼으로 있어도 아무런 불편도 없었다. 사제는 시시콜콜한 본당의 문제도 다 나서서 발로 뛰었다. 사제는 돌팔이 약장수, 의사, 엔지니어, 심리 치료사, 카운슬러 등등의 일까지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문화되지도 못했으며 교육받은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자들의 편지 답장도 써주어야 했던 것이다. 사제는 라틴말을 쓰면서 미사를 드렸기에 신자들이 보기엔 굉장한 인물로 돋보였으며 계속되는 박수 소리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였으며, 교만은 모든 죄의 싹이기에 조금씩 싹어갔다. 날이 갈수록 성직의 인기는 높아가고 그 결과로 성직 매매가 유행하던 폐습까지 생겨났었다(9~10세기). 이에 교황과 공의회는 성직 매매를 금지시켰으며 특히 그레고리오 7세는 강력한 금지령까지 내린 바 있다. 결국 종교개혁의 시련을 맞보았다. 성직자들이 적어지고 성소가 거의 빈사 상태로 줄어든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고령의 사제들이 담당하던 거의 모든 일들

즉 교리 교수, 봉성체, 성경 가르치는 일, 재정 업무, 청소년 지도, 상담을 평신도들이 한다. 미사 중에 독서와 기도는 물론 때로는 강론과 성체 분배를 평신도들이 담당하고 있다. 썩 잘하고 있다. 이 시대에 성소자가 줄어든 것은 하느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한다. 미국의 큰 본당에는 적어도 1백여 명의 유능한 평신도들이 교육받아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II. 평신도의 위상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라 하여 평신도의 수동성이 강조되었다. 능동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말을 전례 용어로 썼기 때문이다. 성사가 거행될 때 멩하니 사제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평신도는 오직 성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인상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신부’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대로 영신의 아버지라고 하여 나이 어린 사제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반말을 서슴지 않았다. 1980년 초 시골 본당 신부로 부임하여 공소 방문을 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큰 절을 올린다고 옆드리는 것을 만류하느라고 등에 땀이 배인 적이 있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끝난 지 어언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평신도의 수동성이 계속되는 경우가 보인다. 그러나 사상이나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차츰 바뀌리라 본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은 분명히 “성직자가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에 따라 평신도의 특수 사명을 인정하고 있다. 마땅하고 옳은 말이다. 성직자가 개인의 영리나 영광, 편함을 위해서 한생을 살 수는 없으며 평신도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마치 교회를 놓고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냐? 혹은 누가 주인 노릇을 하면 좋으냐? 하는 따위의 생각을 성직자나 평신도가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 하는데(평신도교령, 2항) 이는 성직자나 평신도가 함께 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교포 교회들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1964),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1963),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1965) 등을 통해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 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교들이 교세 확장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잘 짜여진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종교가 참 종교임을 강조한다. 비신앙인들로서는 여기저기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결과 어떤 혼돈에 빠진다. 이 사람 이야기가 그럴듯하면 저 종교인의 이야기도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의 판단 기준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기쁘게, 인간답게 사는가를 볼 것이다. 가톨릭의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비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행복한 신앙인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랑과 희망과 능력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줄 알고, 베풀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천주교 신자라면 그는 참 평신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아이다호에 간 적이 있었다. 작은 강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큰 개울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강가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들, 어른들이 손을 잡고 걷거나 운동을 하느라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Hi)!’ 하거나 혹은 눈인사를 하였다. 너무나 평화스러운 풍경에다 평화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에, 필자는 완전히 매료되어 ‘여기가 세상인가!’를 연방 되뇌이며 걸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은 모르몬교가 거의 대부분의 주(州)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 근처의 유타, 와이오밍, 몬타나 주에도 역시 모르몬교가 많았다.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해서 어떤 여행사 이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쪽에 가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평화스러워 보이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모르몬교인들이 사는 주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서로 잘 도와준답니다.”

평신도는 사랑의 침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해야 한다.

### Ⅲ.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1. 성서공부

가톨릭교회는 1943년 9월 30일 매우 중요한 칙서를 교황님으로부터 받았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령의 영감」(*Divino Afflante Spiritu*)이라는 칙서를 통해서 성서 연구를 증진시키라고 촉구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서는 함부로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성서를 읽는 데 있어서도 아가서 같은 것은 일반 신자들에게 읽히기가 거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교회 지도자 몇몇이 해석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평신도는 물론 성직자들도 성서의 근본 문제들을 연구하기가 어려웠다.

비오 12세 교황의 칙서가 나온 뒤 연구가 활발히 계속되던 중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을 발표하면서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25항) 하였고 “신도들은 성경과 친숙해야”(22항) 한다면서, 그러므로 “성직자와 평신도는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한다”(25항)라고 하였다. 공의회의 성서 연구를 재촉하는 말씀들은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하게 하였고, 여기저기서 성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평신도 성서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의 교육을 받은 사제들이 어찌 평신도를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겠는가! 본당에서도 평신도들이 끊임없이 성서를 연구하고 잘 모르는 것을 사제에게 질문함으로써 사제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더불어 연구하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신학교나 신학원 등에서도 평신도들의 연구 업적이 훌륭할 때는 주저없이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는 열린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 2. 신학 연구

신학 연구도 성서와 마찬가지로 것이다. 각 신학대학마다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특히 평신도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드높이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을 연구하여 각 분야에서 일할 때 자연스럽게 평신도들의 위치는 능동적인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이 각계 신학 분야에서 사제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교수로서, 연구원으로서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평신도의 수동적 자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 3. 헌신적인 봉사 정신 필요

필자가 봉사하고 있는 본당에는 5,700명의 신자가 있다. 보좌 신부 없이 혼자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주일만 지나면 눈이 쑥 들어간다. 목요일쯤 되면 피곤이 풀리는 듯하나 토요일부터 계속되는 일들은 한계를 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보좌 신부를 구할 길이 없어서 피곤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면 평신도들이 적극 도와야 한다. 개인마다 생존을 위한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희생적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교사가 부족하니 제발 좀 도와주실 분은 연락해 주세요”라고 후보에 광고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많겠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은 없다. “성가대가 부족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소용없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라고 평신도들이 꼬집기 위해서는 우선 평신도들의 희생적인 봉사 정신이 있는가 하는 반문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목회나 각 단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매번 전화를 몇 번씩 해야 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성직자는 매일 밥 먹고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일반 회사와 다르다. 회사는 그 구성원들에게 봉급을 준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진급에 문제가 있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평신도들

이 교회의 행사나 전도 등에 무관심하다. 성직자 중심주의라고 불평하는 평신도에게 감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세시켰는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선교에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를 위해서는 평신도들이 내 교회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전·입금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전도나 냉담자 회두, 빈자들에게 대한 보살핌,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직자는 성서 연구와 설교 준비, 정성스런 성사 집행, 환자 방문 등의 고유한 성무에 전념하고 나머지 문제는 평신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때 더불어 꾸며가는 아름다운 본당이 될 것이다.

#### 4. 사제들의 반성

사제들 역시 반성해야 한다. 사제는 봉사자로 있는 것인데도 봉사함을 받는 자로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 젊은 사제들에게 나이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연방 외쳐대는 바람에 그만 제정신을 잃은 채 스스로 풍선이 되어 뚝뚝 떨어져 살아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니 나귀는 자기에게 그러는 줄 알고 기뻐하였다는 말이 있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아닌가! 우리의 영광은 곧 예수님의 영광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텐데도 우리는 자주 속고 있다. 어떤 젊은 사제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해서 빈축을 산다고도 들은 적이 있다. "노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화의 시대이다. 우리 교회의 권위주의는 사랑의 봉사로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지금 오신다면 근엄한 사제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목에 힘 빼!' 아마 그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대 영성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토마스 머튼이나 도로시 데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들은 현실 참여의 기수들처럼 여겨진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시적인 사회 정의 운동을 밀받침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은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일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연속일 것이다. 오늘날 사제들에게 있어서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어 불이 흐려진 것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우리 모두의 반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침묵과 묵상의 시간은 더 길어야 하는 것이다. 해안을 갖기 위한 불변의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와 의 만남뿐이다.

## IV. 맺는 말

성직자 중심주의의 탈피를 위한 노력으로,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서술하였다.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업고 한강 백사장에서 미리내까지의 150리 길을 갔던 이 원선시오(만삭)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신부에 그 신자’ 혹은 ‘그 신자에 그 신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격의없는 대화나 봉사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훌륭하게 맡은 바의 소임에 충실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내에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불평을 평신도들이 할 때 그 책임은 성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9 쪽서 계속 )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그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감싸주는 것이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직분입니다.

오늘 품을 받으시는 우리 성직자들이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느님 앞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정의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백성들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도자의 직분을 효과적으로 하느님 앞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자 모두가 함께 하느님 앞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 신앙의 순교자들이 인간의 법보다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의 나약한 성직자들도 어느 인간의 법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 하느님의 계명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하느님 앞에 성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원하면서 우리 성직을 하느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는 성품성사를 집전 하겠습니다.



#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심상태 신부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장·교의신학

‘새로운 복음화’(new evangelization) 또는 간단히 ‘새 복음화’라는 말이 1980년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 교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복음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sup>1)</sup> 1965년에 종료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복음화’(evangelization) 개념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선교’(mission) 개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듯 하였는데, 어느새 등장한 ‘새로운 복음화’는 ‘복음화’와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물음은 ‘민족 복음화’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1984년에 복음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고 현금에 이르러 복음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있어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2000년대의 전야이자 여명기에 해당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층 더 절박하게 발해지는 교회의 정체성 확립 요청에 직면하여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기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공식 가르침에 의거하여 이 개념들의 기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화’ 개념의 의미를 살피고 이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새로운 복음화’ 용어가 교회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위를 일별하고, 교서 「제삼천년기」에 의거, 그 실질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I. ‘복음화’ 개념의 기본 의미

‘복음화’ 개념은 1960년대에 교계 안에서 등장하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공식적으로 수록되면서부터 범교회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sup>2)</sup>

1.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서 수차 ‘복음화’를 뜻하는 용어 ‘evangelizatio’가 등장하지만 우리 한글 번역판에서 이 말은 ‘복음선포’이거나 ‘선교활동’으로 번역되어 있다.

‘선교교령’은 전 교회를 ‘선교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복음화의 과업’(opus evangelizationis)을 ‘하느님 백성의 기본 의무’로 특징지었다. “전교회는 선교적이며, 복음선포(복음화)의 과업은 하느님 백성의 근본적 임무이므로, 성스러운 교회 회의는 모든 사람을 내적 깊은 쇄신으로 부르는 바이다.”<sup>3)</sup> 그리고 ‘교회헌장’에서 이 ‘복음화’ 용어는 삶의 증거와 말을 통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선포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복음선포(복음화), 즉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표현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속의 공통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과 특수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또한 ‘사제직무교령’에서는 성체성사가 이 복음화의 원천이자 절정으로 규정되고 있다. “성체성사는 분명히 선교활동(복음화)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이다.”<sup>5)</sup>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의 이들 구절이나 다른 구절들에서 다른 말로 번역된 ‘복음화’ 용어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전통적 ‘선교’(mission)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2. ‘복음화’ 개념은 1974년 10월에 ‘현대 세계의 복음화’(Evangelizatio mundi huius temporis)의 주제하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주교대의원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교회의 본질적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 주교대의원회의에서 마련된 기초 작업 자료는 복음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복음 안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 복음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애덕의 증가와 성사 집행없이 온전한 의미에서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더구나 그리스도께 대한 기쁜 소식의 선교없이 복음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신약성서에 의하면 복음화의 중심점은 그리스도 신비의 선포인 것이다.”<sup>6)</sup>

3. 1975년 12월 8일자로 공포된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는 전년에 개최되었던 제3차 주교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유권적으로 정리하면서 ‘복음화’ 개념의 정착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sup>7)</sup> 이 교서 이래 ‘복음화’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 규정으로 교계 안에서 자리잡게 된다.

이 교서는 제2부에서 광범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지닌 ‘복음화’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선 ‘복음화’가 교회의 존재 이유임이 강조된다. “복음화하는 것은 실제로 은총이고 교회 본연의 소명이자 자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복음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sup>8)</sup> 그리고 복음화의 의미가 명료하게 서술된다. “교회로서는 복음선교(복음화)의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에까지 전해 주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 5:2 고린 5, 17)라고 한 것과 같이 그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혁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로서 복음선교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방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까.”<sup>9)</sup> 복음화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따르게 된다. “복음화는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란 인류의 쇄신, 복음적 생활의 증거, 명백한 교리 전달, 마음의 귀의, 공동체에 대한 참가, 성사 배령 (Acceptio Signorum), 사도직 활동 등이며, 이 모두는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관계하에서 각 요소를 고찰해야 합니다. 이번 시노드의 공적은 이 요소를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조화있게 생각하여 교회가 해

야 할 복음선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입니다.”<sup>10)</sup>

교황 바오로 6세의 이 교서가 인류와 세계의 복음화의 전제로서 교회와 신자들의 자기 복음화를 요청하고 있음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복음 선포자이지만 교회 자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생활과 친교가 가능한 희망의 공동체,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러한 공동체는 믿고 바라야 할 것과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 교회로서 참신한 활력과 힘을 보유하려면 교회 자신이 언제나 복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표명하고(선교교령, 5항), 1974년의 시노드에서 재확인된 바이지만 교회가 전세계를 참으로 복음화하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교회 자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sup>11)</sup>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시대의 징표’와 관련시켜 진정한 실천적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은 교회의 자기 복음화 요청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것’에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가짜’나 ‘거짓’을 싫어하고 진실과 정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 질문을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말로 알리고 있습니까?’ 생활의 증거는 선교의 참된 효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sup>12)</sup>

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천명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복음화’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인간과 세계를 변혁시켜야 할 교회의 사명과 활동 전체를 말한다.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구현했던 진리로서의 복음을 비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베푸는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생활화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업으로 드러내신 복음의 힘으로 인간을 내적으로 쇄신시켜 ‘복음의 생활’로 인도하는 활동이 복음화 활동이며, 이 ‘복음적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쇄신’이 ‘복음화’라는 용어가 본시 뜻하는 내용이다.

## II. ‘새로운 복음화’ 용어의 등장

198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복음화’ 용어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고 즉각 서구 교계를 위시하여 전교계로 확산되어 사용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복음화’는 라틴 아메리카 복음 전래 50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1983년 3월 9일 아이티(Haiti)의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개최된 제19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정기 총회(CELAM)에서 행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설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교황께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래된 지 500주년을 기리는 뜻 깊은 기회에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

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복음화’의 시작을 선포한 것이다. 그 이후로 그는 중요한 계기를 맞을 때마다 교회와 신자들이 이 새로운 복음화의 과업 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8년 12월 30일자로 반포된 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에서 2000년대의 문턱에 들어선 현시점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새로운 복음화 필요성을 천명한다. “새로운 복음화의 때가 다가왔다.”<sup>14)</sup> 여기서 과거에 그리스도교적이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오늘날 종교적 무관심과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영향으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복음화가 절박하게 요청된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로지 새로운 복음화만이 깊고 빛나는 신앙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전통을 진정한 자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다. 분명코 인간사회를 다시 그리스도화하는 일은 전세계 도처에서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하여 긴요한 것은 이들 선진 국가나 민족들의 교회 공동체 자체의 구조를 먼저 개선하여 그리스도화하는 일이다.”<sup>15)</sup> 이 교서가 새로운 복음화의 실현을 위해 먼저 선진국 교회 공동체의 구조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갈파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복음화가 개인과 함께 전 인류를 지향하면서 더욱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된다. “이 새로운 복음화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전 인구를 향한 것이다. 그 목적은 더욱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성숙에 있다.”<sup>16)</sup> 그분은 새로운 복음화 과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가운데 이 교서를 끝맺는다. “제3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교회 전체는… 새로운 선교 열정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복음화라는 도전적이고 경이적인 이 위대한 과업이 교회에 맡겨져 있으며, 이는 현대세계에서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sup>17)</sup>

2. ‘새로운 복음화’는 1990년 12월 7일에 반포되어 선교 대헌장이라고도 평가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Redemptoris Missio*)에서 주도적 열쇠 개념으로 전면부상한다. 이 회칙에서 현시점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할 적기라고 선언된다. “하느님께서 복음을 심을 수 있게 잘 준비된 인류의 모습을 교회에게 보여 주신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새로운 복음화와 외방선교에 투입할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각성시키고자 한다.”<sup>18)</sup>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있어서 오늘날은 교회에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교회는 외방선교에 있어서나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백성들의 새로운 복음화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sup>19)</sup> 그는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주교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에게 상기시킨다. “나는 주교단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복음화나 보편적 선교에 관하여 이 임무를 상기시킬 의무를 느낀다.”<sup>20)</sup>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교회의 새로운 봄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인들이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하도록 인도한다. “인류 구속의 제3천년기가 임박한 이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새벽을 보고 있다. ……그리스

도교적 희망이 새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투신하는 우리를 지탱하여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게 한다.”<sup>21)</sup>

3. 1994년 11월 10일에 반포된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nio Adveniente*)는 ‘새로운 복음화’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물음에 대한 유권적 해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서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교회 안에서 개최되는 일련의 시노드들의 중요 작업들의 기본 주제가 ‘새로운 복음화’라고 규정되면서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기 때문이다. “2000년의 접근을 위한 준비의 일부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시작된 일련의 시노드들, 즉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더불어 대륙, 지역, 국가 그리고 교구의 시노드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기저가 되는 주제는 복음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복음화입니다.”<sup>22)</sup>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성사들과 은사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새로운 복음화의 역군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이 새로운 복음화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알게 한다. “오늘날에도 또한 성령께서는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sup>23)</sup>

### Ⅲ.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의미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규정되는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교서는 2000년을 대희년(大禧年, the Great Jubilee)으로 선포하면서 보편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구세주 탄생 2000주년의 뜻 깊은 경축년을 합당하게 맞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촉구와 함께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교서에서 새로운 복음화 작업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착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인과 전체 교회 생활 안에서 활성화하는 일이 바로 그 새로운 복음화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천년기를 위한 최상의 준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가르침을 각 개인과 온 교회의 생활에 되도록 충실하게 적용하려는 쇄신된 투신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sup>24)</sup> 지난 공의회는 4개 헌장(전례, 교회, 계시, 사목)과 9개 교령(매스 미디어, 일치운동, 동방교회, 주교, 수도생활, 사제양성, 평신도, 선교, 사제직무) 그리고 3개 선언(그리스도교 교육, 비그리스도교, 종교 자유) 등 도합 16개 문헌을 통하여 교회의 고식적인 가르침을 반포한 바 있다.

이 교서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서 이룩된 방대한 규모의 업적 중에서 열거하는 다음의 몇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8~20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인 자신의 신비적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덕을 향한 보편적 소명을 재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삶의 ‘원천이자 정점’인 전례 개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회는 여러 생활 영역에서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평신도성소로부터 수도성소에 이르기까지, 부제직무로부터 신부와 주교직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소명들을 촉진하고자 주력하였으며, 특히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 안에서 주교들에 의해 수행되는 주교 단체성을 재발견하였다. 또한 교회가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종교 신봉자들과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방하여서 그리스도교 일치에 관하여,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의 대화에 관하여, 구약과 이스라엘의 의미에 관하여, 각 개인의 양심의 존엄성에 관하여, 종교 자유의 원칙에 관하여, 교회가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상이한 문화적 전통들에 관하여, 그리고 사회적 통교에 관하여 명료하게 발언하였다.

2. 이 교서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후에 개최되기 시작한 일련의 시노드들의 주제가 복음화, 또는 그보다 새로운 복음화이며, 이들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를 구성한다고 규정된다. “이 시노드들 자체가 새로운 복음화의 부분들입니다. 이 회의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상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sup>25)</sup>

이러한 시노드들이 이룩한 주요한 업적들이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21항).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참여를 위한 많은 영역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구원사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고취되고 이 각성은 특히 평신도의 선교, 사제양성, 교리교육, 가정, 교회와 인류 일반의 생활 안에서의 참회와 화해의 가치에 관한 공의회 이후의 교서들이나 축성된 생활에 관련된 후속 교서들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3. 이 교서는 2000년 대희년을 맞는 기쁨이 하느님과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화해를 이룩하는 전체인 회개의 기쁨임을 역설하면서 회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32~36항). 먼저, 교회의 성원들인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정신을 세상에 증언하기는 커녕 “반-증거(counter-witness)와 추문의 형태를 보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빠져 들었던” 모든 죄과를 회개할 것이 촉구된다. “교회는 자기 자녀들이 참회를 통하여 과거의 과오와 불충한 사례들, 항구치 못한 자세와 구태의연한 행동에서부터 자신을 격려하지 않고는 새로운 천년기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sup>26)</sup>

그런데 일차적으로 요청되는 회개의 대상으로서 하느님 백성의 분열이 손꼽힌다. 현금에 제1천년기 때보다도 교회의 친교가 더 크게 손상된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는 분명 모순되며 세계에 대해서는 스캔들이 되는 원인들로 규정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가 최소한 제2천년기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 많이 접근한 가운데 2000년 대희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각자 양심 성찰을 하고 에큐메니칼운동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교리 문제들에 대한 대화의 도정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27)</sup>

다음으로, 특정 세기에 진리에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불용과 폭력 사용마저 묵인했던 사실이 참회되어야 한다고 역설된다.<sup>28)</sup>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러한 과실이 시대 문화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사랑과 온유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의 모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교회의 면모를 훼손한 수많은 성원들의 나약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교회의 책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거하여 피력한다. “이 과거의 뼈아픈 순간들로부터 미래를 위하여, 공의회가 공표한 숭고한 원칙에 전적으로 충실하도록 만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한 교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정신을 침투하는 진리 그 자체의 힘으로써가 아니면 결코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sup>29)</sup>

세 번째로, 우리 시대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의 책임에 관한 성찰이 촉구된다. 그래서 종교적 냉담, 세속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하느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적 결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된다.<sup>30)</sup>

또한 이 교서는 전체주의 정권들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유린과 관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분별력의 결핍을 개탄하고 막중한 형태의 불의와 배척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책임을 유감스럽다고 규정하며,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교회의 사회 교리 원리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며,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묻는다.

4. 그리고 “제2천년기의 끝에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위대한 선물인 공의회에 의거한 가르침”이 그동안 교회생활 안에서 제대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촉구된다. “‘계시현장’이 추구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충만하게 신학의 영혼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영감이 되었습니까? ‘전례현장’의 가르침에 따라, 전례는 교회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으로서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보편교회와 개별 교회들 안에는 ‘교회현장’이 서술하는 친교의 교회론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관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진정한 정신을 반영하지 않는 민주주의나 사회론에서 빌려온 개념들을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그 교회론은 은사와 직무를 비롯하여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교회와 세계의 관계가 지닌 특성은 또 다른 심각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신중한 식별과 용기있는 증언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개방적인 대화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목현장’과 다른 문헌들에 제시되어 있는, 공의회에의 지침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인 투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sup>31)</sup>

5. 이 교서는 이미 개최된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시노드의 모범을 따라 다른 대륙에서도 대륙적 시노드들 (Continental Synods)을 개최하도록 촉구하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화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고대 지역 문화들과 종교들과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쟁점을 논의할 시노드 개최가 필요하다고 진술된다.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 체제들은 분명히 구원론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는 다른 대종교들의 창설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더욱 완전하게 진술하고 해명하기 위하여 대회년을 계기로 주교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지한 평가와 함께 저 종교들 안에서 발견된 진리의 요소들을 모든 사람을 밝혀주는 참 진리의 반영으로 간주합니다.”<sup>32)</sup> 여기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 천명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입장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세계적 종교의 창설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이 새롭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촉구가 발해진다.

6. 이 교서는 2000년 준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는데 직접적 준비의 제2단계의 첫째 해(1997)와 관련하여 발해진 지침들도 새로운 복음화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한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유에 바쳐질 이 해에 희년의 첫째 목표가 '신앙의 강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심화'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성격이 천명된다. "그러므로 더욱더 열렬히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 사람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의 맥락 안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덕에 대한 참된 갈망을, 회개와 인격적 쇄신에 대한 깊은 열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sup>33)</sup>

7. 제2단계의 두 번째 해(1998)는 특별 양식으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그분의 성화 현존께 봉헌된다(44~48항). 이 시기에 교회의 선익을 위해 성령께서 고취시키는 다양한 은사와 역할 그리고 직무들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현존과 활동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신앙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세계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도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도록 촉구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현금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현존하는 희망의 표징들을 더욱 잘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필경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그러한 희망의 표징들은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의 진보 특히 의학적인 진보, 환경에 대한 우리 책임에 관한 더욱 깊은 각성, 평화와 정의가 침해되는 곳에서 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 다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특히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추구하는 화해와 연대를 위한 열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 희망의 징표들은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평신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더욱 큰 관심, 그리스도교 일치에의 대의를 위한 더 적극적인 투신, 다른 종교들과 현대문화와 나누는 대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sup>34)</sup> 또한 요한 바오로 2세에게서 다른 종교와 현대문화와의 대화에 대한 관심 증가가 하나의 희망의 징표로 꼽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복음화 사명의 일부로 규정한 바 있다. "타종교와의 대화는 교회의 복음화사명의 일부이다. 이 대화가 상호 인식과 상호 기여의 길이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외방선교에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선교와 특수한 관련이 있고 선교의 한 모습일 수 있다."<sup>35)</sup>

아울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복음과 민족문화와의 융화로서의 토착화가 복음화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대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들 사이에 선교활동이 추진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를 만나게 되고 토착화의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토착화의 요청은 교회의 전과정에 나타난 것이지만 오늘날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 적응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토착화는 '인간문화가 그리스도교에 수용됨으로써 그 문화의

참된 가치의 내적인 변모가 이루어지는 것과, 여러 가지 인간문화 안에 그리스도교가 삽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착화를 통하여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에 복음을 융화시키고 동시에 백성들을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다. 교회는 그들에게 교회의 가치들을 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진 모든 선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적으로 갱신한다. 한편, 교회는 토착화를 통하여 교회 자신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표지가 되고 선교의 유효한 도구가 된다.”<sup>36)</sup>

8. 제2단계의 세 번째 해(1999)는 성부께 봉헌되는 해로서 신앙생활이 회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재차 강조된다.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소극적’ 측면, 그리고 자연법에서 표현되고 복음으로 확인되고 심화된 윤리적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을 선택하는 ‘적극적’ 측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불가결한 조건인 회개의 축구는 흔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생관의 토대가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sup>37)</sup>

이 해에 특히 애덕 실천이 강조된다.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마태 11, 5; 루가 7, 22 참조) 오셨음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에 어찌 더 큰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토록 수많은 갈등과 참을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은 회년의 준비와 경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정신(25, 8~12 참조)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회년이, 다른 일들 중에서도 특히, 여러 국가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배려할 적절한 시기라고 제안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회년은 또한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의 어려움과 여성의 권리 존중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증진에 관련된 문제들과 같은 우리 시대의 다른 도전들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sup>38)</sup>

또한 이 셋째 해에 신자들은 세속주의의 도전과 위대한 종교와의 대화 등 두 가지 일에 특별히 투신할 것을 요청받는다(52~53항).

여기서 세속주의의 도전과 만남에 관련해서, 서방세계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 기술의 입장에서 고도로 발달하였으나 하느님을 망각하거나 그분을 멀리서 유지하려는 경향에 의해 내적으로는 빈곤하게 된 문명의 위기의 광범한 주제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이 문명의 위기가 평화, 연대, 정의와 자유 등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된 보편적 가치들에 정초한 사랑의 문명에 의해 대치되어야 하리라는 입장이 개진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기계 기술의 발달에 입각한 재산의 축적을 지향하는 소유 정향의 문명보다 정의롭고 형제에 넘치는 인간적 문명의 실현을 지향했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현대 세계의 지배적인 물질을 극복하고 ‘사랑의 문명’ 내지 ‘사랑의 문화’ 건설의 필요성을 교황 재임 초기부터 꾸준히 역설해 오고 있다. 교황께서는 1984년 2월 11일에 반포된 교서 「구원에 이르는 고

통」(*Salvifici Doloris*)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인간의 문명 전체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계획이거니와, ……인간의 문명 전체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형시키기 위함입니다.”<sup>39)</sup>

이 교서에서 다른 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지녀야 할 기본 자세에 관한 지침이 발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 혼합주의와 안이하고 기만적인 평화주의의 모험을 피하면서 해가 될 수도 있는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sup>40)</sup>

#### IV. 복음화와 새 복음화, 그리고 2000년대 한국 교회의 과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복음화’ 개념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전통적 ‘선교’ 개념을 대신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 온 ‘복음화’ 개념과 관련시켜 의미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음화’와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상관관계를 규정하고 2000년대 한국 교회의 과제로서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간략히 시사하기로 한다.

1. 다가오는 2000년대에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할 ‘새로운 복음화’ 작업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현급까지 개최된 일련의 시노드들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의 부분들이다. 그래서 지난 공의회에서 공포된 교회의 가르침들이 모두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기본 내용이고 교황 바오로 6세와 후임 교황들이 반포한 공식적인 가르침과 여러 대·소규모의 시노드들이 새로운 복음화를 구체화하는 부분들로서 개인적이고 교회 전체 생활에 가급적 신실하게 적응되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여기서 지난 공의회와 후속 문헌들, 이를테면 교황 바오로 6세의 교서 「현대의 복음선교」와 같은 문헌이 ‘복음화’ 용어를 사용하여 가르친 내용들도 실제로는 ‘새로운 복음화’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진다. 말하자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 바오로 6세에게서 사용된 ‘복음화’ 개념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복음화’ 개념 사이에 내용상 질적 차이란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들의 가르침과 시노드들의 공식 결정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지난 30여 년간 교회 안에서 면면히 지속되어 온 일련의 노력과 시도들은 ‘새로운 복음화’ 작업을 나름대로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하지만 ‘새로운 복음화’가 “새로운 열의와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표현”으로 이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는 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새로움’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복음화’가 복음 안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여서 복음선포와 성사 집행, 그리고 애덕의 증가로 이룩된다고 규정될 때에 전통적인 ‘선교’ 개

넘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초기부터 선교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여 이들이 성사생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선교활동은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간주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을 교회의 성원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선교활동의 성공은 입교자와 성사생활 참여자 수 등 수치로 파악 가능한 양적 성장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 선교 자세는 독백의 성격을 지니는 선포와 종교세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패권주의의 취지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독백적 형식으로 선포하고 저들의 회개만을 일방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역사 도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행해진 반복음적인 과오들에 대한 죄책을 과감히 인정하고 신자들의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정화와 충실을 도모하여 교회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취지와 함께 다른 종교들과 문화들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감추인 신비를 더욱 풍요하게 드러나게 하고 신앙의 심화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류와 세계의 구원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선교활동도 세계 안에서의 교회 부식 확장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통한 인류와 세계의 내적 변혁 내지 쇄신을 일차적이고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서 교회의 자기 복음화와 외부세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는 '새로운 복음화'가 외부세계에 대해 복음을 독백의 양식으로 선포하고 제자들을 모으는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 자세와는 구별됨이 분명히 드러난다.

3. 한국교회 역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따라 교회를 쇄신하려는 시도를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다양하게 전개하여 왔다. 특히, 한국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사목회의'는 대내적으로는 교회의 쇄신을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룩하는 사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1984년에 소집되었다. 사목회의는 4년여 동안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교회의 현안 문제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전례, 신심운동, 지역사목, 교리교육, 가정사목, 특수사목(1. 청소년, 노동, 농촌, 이향; 2. 관광, 해양, 교포, 병원, 군중, 이주자), 교회 운영, 선교 그리고 사회 등 12분야로 나누어 신앙의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의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목회의는 민족의 복음화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한국교회의 현상을 분석,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 선교 대책을 수립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서 「제삼천년기」를 통하여 각 지역 교회에 대해 요청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사목회의에서 직접 취급했던 12분야의 작업들과 함께 에큐메니칼운동, 다른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사랑의 문화' 창출과 같은 작업이 세계 교회와 보조를 같이하면서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착수될 필요가 있기는 하다. 여하튼 사목회의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래 교회 안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복

음화의 부분으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화 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국교회가 2000년대 민족과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서 투신하려는 한에서 무엇보다 앞서 복음적 증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면서 거시적 안목으로 사목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항구하게 실천에 옮기려는 구도적 노력을 범교회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따라 개최되었던 사목회의의 결실들을 2000년대의 시대 상황 속에서 현명하고 신실하게 적용하고 그 밖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적절한 입장을 정립함으로써 교회를 쇄신하고 민족과 인류, 그리고 세계의 구원에 기여해야 하는 고귀하면서 중차대한 '새로운 복음화' 과업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 1) '새로운 복음화' 개념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에 관하여 M. 자고(Zago), "새 복음화의 내용", 「회보」 68호 (1991. 12. 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2~56면; "유럽 주교 대의원회의 최종 선언문", 「회보」 71호 (1992. 9.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32면; 졸문, "토착화론의 현황과 쟁점", 「한국 그리스도사상」 제2집 (1994), 222면 이하; 졸문,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 연구", 「한국 그리스도사상」 제3집 (1995), 162~202면 참조.
- 2) '복음화' 개념의 의미에 관하여 졸문, "교회의 복음화", 「김병상신부회갑기념논문집-의로운 사회와 교회」,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편, 가톨릭출판사, 1992, 419~526면 참조.
- 3) 35 항: "Cum tota Ecclesia missionaria sit, et opus evangelizationis officium Populi Dei fundamentale, Sacra Synodus omnes ad profundam renovationem interiorem invitat, ……."
- 4) 교회헌장, 35항.
- 5) 사제적무교령, 5항.
- 6) Synodus Episcoporum, *De evangelizatione mundi huius temporis. Instrumentum laboris ad usum sodalium Coetus generalis Synodoi Episcoporum*. Ed. Civitate Vaticana, 1974, n.24.
- 7) 바오로 6세 「현대의 복음선교」, 이종홍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참조.
- 8) 「현대의 복음선교」, 14항.
- 9) 같은 책, 18~19항.
- 10) 같은 책, 24항.
- 11) 같은 책, 15항.
- 12) 같은 책, 76항.
- 13) 요한 바오로 2세, "제19차 CELAM 정기 총회에서의 연설": *AAS LXXXV*(1983), 778면 참조.
- 14)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강대인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34항.
- 15) 위와 같음.
- 16) 위와 같음.
- 17) 같은 책, 64항.
- 18)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사명」, 정하권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3항.
- 19) 같은 책, 30항.
- 20) 같은 책, 63항.
- 21) 같은 책, 86항.
- 22) 요한 바오로 2세, 「제삼천년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1항.
- 23) 같은 책, 45항.
- 24) 같은 책, 20항.
- 25) 같은 책, 21항.

( 38 쪽에 계속 )

## 새로운 복음화와 한국교회

김유철 신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사목신학

### I. 문제제기

‘예비자 감소와 냉담자 증가’란 말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줄곧 되뇌어 온 말이다. 「1994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는 한층 더 심각해진 ‘선교 위기 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교회 매스컴들은 「1994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분석하여 신자 증가율이 10년째 지속적으로 ‘뒷걸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의 복음화 및 선교 방법의 전면 재검토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있다.<sup>1)</sup> 이런 추세로 계속된다면 11년 후엔 신자 증가율 ‘0’이라는 예시와 함께, 신자 증가율과 반비례하여 증가 일로에 있는 냉담자 문제는 25%선에 육박하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sup>2)</sup> 더구나 2, 30대에선 이 냉담자 비율이 더욱 높아짐을 볼 수 있다.<sup>3)</sup> “선교 전선에 이상있다”는 말로 1995년도를 마감하고, 1996년을 맞이하면서 2000년대를 향한 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이 분석을 토대로 이에 맞갖은 처방이 내려지고 그 처방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냉담자 증가 원인부터 살펴보자. 직접적인 냉담 이유는 냉담자수만큼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개개인의 이유보다 교회 공동체의 체제 내지는 공동체의 결함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냉담자 증가의 일차적인 원인이 대개 본당의 대형화 또는 비대화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1960년만 해도 도시화율이 25%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엔 74.4%로 증가하여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sup>4)</sup>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본당의 대형화는 신자들의 익명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체계적인 신자 재교육의 미비와 산업화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 사고 증대로 인한 개인주의적 신앙 습성과 맞물려 냉담자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본당의 대형화로 인한 소속감 및 친교 부족과 주변의 무관심, 또는 소외감이 냉담자 증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소속감 부재로 인하여 냉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마치 비만이 성인병의 주범이듯 교회의 비대화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 미비로 인한 신자들의 교리 지식 부족이 더욱 이런 기능 장애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겠다.

예비자가 감소되고 있다. 예비자 감소 문제는 냉담자 증가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되어 이탈하는 공동체에 누가 매력을 느낄 것이며, 새로 찾아오겠는가? 냉담자가 증가하면 예비자가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영세자들의 영세 동기를 보면 이웃이나 가족의 권유, 즉 직접 선교의 영향에 의한 것이 가장 높은 비율임을 감안한다면<sup>5)</sup> 우리 신자들의 선교의식 부족이 또한 예비자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서울대교구 선교국이 각 본당 선교 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7%가 '선교 사명을 알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중 48%는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못한다'고 응답하였다.<sup>6)</sup> 결국 선교사명의 중요성을 신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이는 교회가 선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교육 부족과 이로 인한 선교의식 문제는 예비자 감소 문제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냉담자 증가에도 연관된다. 이런 무지와 무지로 인한 주위의 무관심이 결국 냉담자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냉담자 증가와 예비자 감소의 이유를 우리는 본당의 대형화가 1차적 이유라고 진단하였다. 즉 본당의 비대화로 신자들이 익명화되고 소외되어 소속감을 상실하게 된 것이 1차적 냉담의 이유라고 본다. 또한 충분한 교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속되지 못했기에 신자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자신감이 없기에 남에게 나서 직접 선교에 투신할 수 있는 의식도, 능력도 없고 보면 예비자 감소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 신자들의 '새로운 복음화'를 통한 신앙 공동체 형성이라 하겠다. 즉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교회론에 입각하여 '천교의 공동체'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아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조로 교회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 기능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00년의 대희년을 향한 단계적 준비 여정에 있다. 이 준비 여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 희년으로 시작되는 2000년대 복음화의 새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II. 희년(禧年)을 향하여

두 번째 천년기를 마감하는 2000년의 대희년 준비를 위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삼천년기」라는 희년 준비에 관한 교서를 내었고<sup>7)</sup> 이 교서에서 교황은 삼천년기의 전야인 2000년 대희년을 맞기 위하여 희년의 의미와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희년(禧年)이란 “주님의 은총의 해”(이사 61, 2)이며 “주님께 복을 받은 날”<sup>8)</sup>으로써 “기쁨의 시간”을 의미한다. 희년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

어 여자 몸에서 나게 하셨다”(갈라 4, 4)는 ‘말씀의 육화 신비’, 따라서 구원의 신비와 연결된다.<sup>9)</sup> 회년은 따라서 ‘시간의 충만’,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sup>10)</sup> 즉 ‘영원’이 육화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이로써 창조 때 시작된 인간적 시간이 그 ‘충만’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11)</sup> 이로써 ‘마지막 날들’(히브 1, 2), ‘마지막 시간’(1 요한 2, 18)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지속될 교회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sup>12)</sup> 이처럼 회년이란 바로 육화하신 말씀이신 나자렛 예수를 통하여 이의 성취가 선포된 ‘주님의 은총의 해’를 뜻한다.<sup>13)</sup>

구약의 전통에도 이미 회년은 ‘하느님께 특별한 양식으로 봉헌된 시간으로 관행화되어 있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회년은 ‘해방’과 직결된다. 매 7년째의 해인 안식년으로서의 회년에는 농경지를 쉬게 하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리고 매 50년마다 안식년의 관행을 더욱 확대하여 회년을 지냈다.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회년으로 지킬 해이다(레위 23, 16).”<sup>14)</sup>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이들의 ‘전적인 해방’이다. 어떤 실수나 실패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매각했거나 노예 상태로 전락되었던 이들이 이 기회에 원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회년은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sup>15)</sup> 따라서 회년은 법으로 정한 시기에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선포되어야 했던 ‘주님의 은총의 해’로써 ‘기쁨의 해’, ‘구원의 해’ 그 자체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2000년 회년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를 시작한 섭리적 사건으로 전제하고<sup>16)</sup> 공의회 이후의 주교 시노드들은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sup>17)</sup> 부분 내지는 이를 위한 준비였음을 강조한다.<sup>18)</sup> 그의 교서 「제삼천년기」 4장에서는 회년을 위한 직접 준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두 단계로 준비 과정을 설정하고<sup>19)</sup> 1994년에서 1996년까지의 3년을 제1단계로 하여 대회년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각성을 위한 어떤 의미의 교육적 준비를 강조하고,<sup>20)</sup>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3년을 제2단계로 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론을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sup>21)</sup>

제1단계는 일종의 사전 준비 단계로서 우선 두 번째 천년기를 지내온 교회 자신에 대한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sup>22)</sup>

제2단계는 보다 직접적인 준비를 위한 3년간으로서 성자, 성령, 성부의 순으로 주제 구조를 잡고 있다.<sup>23)</sup>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 신자들이 성서와 더욱 가까이 할 것<sup>24)</sup> 교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sup>25)</sup> 둘째 해는 성령을 주제로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성화 현존”에 바쳐지고 있다.<sup>26)</sup> 즉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으로서의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다.<sup>27)</sup> 셋째 해는 ‘하느님 아버지’를 주제로 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의탁한 진정한 회개의 여정이 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2000년엔 대회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는 ‘대경축의 장’이 되어 ‘열렬한 성찬의 해’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sup>29)</sup>

우리 한국교회는 1995년도 추계 주교회의에서 2000년 대회년 주교 특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2000년 대회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년을 위한 준비 과정 전체가 구체적인 새로운 복음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Ⅲ.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복음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근원지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도적 권고는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1987년에 열렸던 주교 시노드 이후 1988년 발표된 문헌이다. 교황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변화된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황’들을 열거하고(서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교회론(제2장)에 입각한 평신도들의 새로운 위치를 제시하면서(제1장), 이 새 교회론에 입각하여 새 상황에 걸맞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평신도 양성 내지는 복음화된 공동체로서의 복음화 과정 전체를 ‘새로운 복음화’라 부르고 있다(제3장).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은 한마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에 바탕을 둔 ‘친교의 교회론’이다.<sup>30)</sup> 교회는 성삼의 일치에 바탕을 두고 모인 백성으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에 기초한 친교가 바로 교회의 신비이다.<sup>31)</sup> 친교 Communio란 라틴어 Cum-munus(공동직무) 또는 Cum-moenus(공동 방어처)에서 파생된 용어로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 과제나 공동으로 같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말이 바오로 서간의 교회론적 의미로 쓰여진 Koinonia란 말을 Communio로 번역하면서 종교적 의미로 채색되었다.<sup>32)</sup>

‘친교’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sup>33)</sup> 친교란 성서에서 코이노니아란 말이 가지는 의미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이 하나됨을 근거로 하여 부르심을 받은 믿는 이들 사이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이 일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총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어떤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것의 표현이다. 그래서 친교는 하나의 개념 이라기보다 살아 숨쉬는 삶의 반영이어야 한다.<sup>34)</sup> 따라서 신앙인 각자는 바로 이 교회의 친교의 신비 안에서 ‘신원’이 드러나며 존엄성이 밝혀지는 것이다.<sup>35)</sup> 하느님 백성으로서 모든 신앙인들의

교회에의 참여는 모두 바로 이 친교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이 참여를 통하여 친교 자체가 증대되고 생활화되는 것이다.<sup>36)</sup> 이처럼 친교는 친교를 낳기에 친교는 선교적이며 동시에 친교는 선교의 결실이기도 하다.<sup>37)</sup> 이 친교의 교회론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재발견한 최고의 보물로서 공의회 핵심 사상이다.<sup>38)</sup>

복음선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본성이다.<sup>39)</sup> 이 복음선포를 통하여 교회, 즉 신앙 공동체로서의 친교 공동체는 건설된다. 이 친교 교회론의 재발견으로 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지속적으로 이 교회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공동체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평신도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친교 교회론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평신도의 참여와 특수 책임들이 강조되었고 이런 의도에서 지역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런 새로운 교회론에 입각한 친교 공동체로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 내지는 복음화를 ‘새로운 복음화’라 부르는 것이다.<sup>40)</sup>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는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 공동체 형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sup>41)</sup>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 성사생활 및 증거생활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때만이 평신도들의 교회 공동체에의 능동적이고 책임성 있는 참여가 가능해지며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증거의 공동체가 되어 선교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신도들의 참여가 확대되어 교회의 제 영역에 평신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 건설이 바로 새로운 복음화의 목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음화란 지역 교회들이 방인 성직자 양성만이 아니라 성숙하고 책임있는 평신도를 양성하여 복음선포와 증거 사명에 응할 수 있는 ‘복음화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sup>42)</sup>

#### IV. 새로운 복음화와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자 증가의 주원인이 본당의 비대화과 이에 따른 신자들의 익명화로 인한 서로의 무관심과 소외감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결국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재발견된 새 교회론으로서의 ‘친교의 교회론’을 우리 한국교회가 실현해 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말이 된다. 시대의 변함에 민감하지 못했고 시대의 표시를 읽고 분별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목정책 수립에 게으른 채 구태의연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선 새로운 복음화를 통한 ‘친교의 교회론’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친교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라는 ‘이중의 참여’를 의미한다. 즉 친교는 “그리스도인 각자와 그리스도의 친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친교”를 의미한다.<sup>43)</sup> 이 친교가 바로 교회의 핵심이기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교회의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하느님께서서는 각 개인을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모아서 당신을 진실히 알아 모시고 충실히 섬기도록 하시었다”고 선언하고 있다.<sup>44)</sup>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과의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5)</sup> 여기에서 ‘표지’란 복음화되어 친교의 신앙을 실생활에서 보여주는 ‘증거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고, 동시에 ‘도구’란 삶을 통해 친교를 증거해 보일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 친교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선교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이다.

교회가 지역적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 보이는 곳은 현행 교회 구조상으로 보아 본당이기에 “교회적 친교는 언제나 보편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본당 안에서 그 가장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표현을 발견”해야 한다.<sup>46)</sup> 본당이 바로 교회의 신비가 현존하고 활동하는 곳으로서 조직이라기보다 “한마음으로 결합된 형제적 가정”<sup>47)</sup>이며, “형제애가 감돌고 따뜻이 사람을 맞아 주는 큰 집”<sup>48)</sup> 같은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sup>49)</sup>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당이 산업사회의 도시화 현상에 의해 너무 비대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너무 비대하여 이제 본당은 기초 단위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보존과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본당의 진정한 의미, 즉 “교회의 ‘신비’가 활동하는 터전”<sup>50)</sup>으로서의 본당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이미 어디선가 언급했듯이, 본당의 비대화로 인한 사목상의 문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sup>51)</sup> 남미 교회나 유럽 교회에 비하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저들 교회처럼 문제가 고질화되기 전에 처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남미 교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본당 내 소공동체의 활성화로 사제 부족 내지는 본당의 비대화로 야기된 사목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 오고 있으나,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고 생활의 풍요를 구가하는 소위 선진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본당의 비대화로 야기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1974년 시노드에서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해결을 위해서 도시 지역 본당의 교회 구조와 태도에 대한 재고가 촉구되었다.<sup>52)</sup> 1987년 시노드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교회 공동체 자체의 구조를 먼저 개선하여 그리스도화’해야 한다고<sup>53)</sup> 전제하면서 시노드에서 제기된 효과적인 본당 쇄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법의 한도 내에서의 신축성 있는 본당 구조의 채택, 특히 ‘평신도의 사목 책임 분담의 증진’, 나) 상호 봉사과 사랑 안에서 친교가 가능한 ‘소규모의 기초 공동체’ 또는 ‘생활 공동체’ 활성화.<sup>54)</sup>

## 1. 본당의 소형화

우선 7, 8천 심지어는 1만5천 명의 신자로 구성된 대도시의 대형 본당들을 소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행히 꾸준히 성직자 수가 증가하여 통계상으로는 사제 1인당 평균 신자수가 1천5백 명 정도라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 여건상 지속적인 본당 소형화가 불가능해 보인다. 우선 성당을 지을 수백 평의 터를 구하기 어렵거나, 있다 해도 너무 엄청난 경제적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사고방식 내지는 그 어떤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기에도 해결책은 있어 보인다. 모든 공동체가, 더구나 1, 2천 명의 소형 본당을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수백 평의 대지 위에 거대한 성전 건물을 꼭 지어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한국 문화의 옛 전통처럼 현재 본당이 큰집이 되어 주변에 작은 아우집들을 분가하여 명절이나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큰집에 모이고, 평소엔 각기 자기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본당 모습은 불가능할까? 현재의 본당을 큰집 내지는 본부로 하고 셋이든 다섯이든 필요한 만큼의 작은 본당으로 분가하여 전례나 모임을 위한 회관 내지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세들어 쓰고, 사목자들은 현본당의 사제관에서 공동으로 살면서 출퇴근하는, 그리고 1년에 몇 번 큰 축일 때에는 큰집에 모여서 함께 전례를 집전하고, 어떤 사목 프로그램은 큰집에서 함께 진행하는 형태의 '팀사목'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더구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는 종교 부지가 제한되어 있기에 몇 개의 성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아파트 건축주들과 계약하여 필요한 지역 아파트 몇몇 동의 지하에 특수 공간을 설계에 넣어 불하받아 내장을 따로 자비 부담으로 하는 형태의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는 없을지? 이것이 가능하다면 종교 부지에는 큰집 내지는 본부 형태의 성당을 짓고 공동으로 쓸 사제관을 건축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현실화되려면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 보고 돌파구를 모색해 보자는 말이다.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여 본당이 소형화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본당이 '친교'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음화로서의 '친교의 공동체' 실현을 향한 기반은 적어도 마련되는 것이다. 비록 본당이 소형화된다고 하더라도 신자 개개인들이 현재 사조인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사회 구조 자체가 저들을 계속 개인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한 소형화된 본당도 역시 개체들의 모임일뿐 '이웃 사촌'의 안온함을 느끼는 형제적 공동체이길 기대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친교의 교회론에 근거한 본당 본연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교구에서 사목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공동체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 2. 소공동체의 강화

본당의 대형화로 인한 익명화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본당이 친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은 본당의 소형화와 병행하여 본당 내에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본당이 소공동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리고 이들 소공동체들이 활성화된다면 익명화되어 소외감을 느끼던 개개인들은 각 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므로 익명성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공동체란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의 친교를 나누고 상호 봉사과 사랑 안에서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로서 “교회적 친교의 진정한 표현이며 복음선포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다.<sup>55)</sup> 따라서 소공동체들은 “교회 활력의 표시요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으로서 이들 생활 주변과 촌락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교 생활의 누룩이 되고 사회 개량의 임무를 이행하게 된다.<sup>56)</sup> 본당 내에 있는 이들 소공동체가 바로 신자 각자에게는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고 그 안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친교의 교회론’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장이 바로 여기이기에 신자들에게는 교회적 친교와 사명에 대한 의식과 체험을 제공해 주는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터전이 될 것이다.<sup>57)</sup>

1990년대에 들면서 한국교회에서도 사목상 이유에서 서울대교구를 주축으로 소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현재는 거의 전국 각 교구에서 구역·반조직을 소공동체로 육성하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내지는 ‘이웃 사촌’의 정신을 그리스도인 정신 안에 되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에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목이 교회 내에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해방신학을 배경으로 한 남미에서부터이다. 남미의 브라질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 등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어떤 시도이든 성장 과정에서 ‘시행 착오’는 있게 마련이다. 남미에서의 소공동체 시도 초기에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음을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적 복음선교」 58항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교회의 희망으로 받아들여졌고,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51항에서 “교회 활력의 표시요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으로 소공동체를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소공동체는 운동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요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생활 공동체로서 지역, 문화, 경제, 정치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야 하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쇄신을 통한 성장이 요구된다.

혹시 우리는 이런 당연한 시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남미나 아프리카가 30여 년간 시행 착오를 거쳐가며 이루어놓은 결실을 그대로 우리 환경에 옮겨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남미나 아프리카의 결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안다. 이들 뒤에는 남미 특유의 해방신학적인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처한 그들 특유의 문화적 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없

이 확일적으로 밀어붙이며 너무 급하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복음화의 목적인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로의 성숙을 위한 계획적인 지속 교육 및 평신도 양성 과정이 생략된 채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선, 평신도 일꾼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교육시키며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즉 평신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의 길이 제공되지 않고는 소공동체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란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친교가 바탕이기에 성직자 중심의 일방적인 밀어붙임으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웃 신자간의 정규적 만남과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친분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토대로 한 성서 말씀 나누기 등을 통하여 성서와 친숙해져서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성서와 현실 간의 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복음의 눈으로 현실을, 현실을 통해 복음을 볼 수 있는 복음을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소공동체 활성화를 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20여 년 가까이 조용히 수도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보급되어 온 다양한 '성서 모임'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신자들이 성서에 조금은 친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sup>58)</sup>

## V. 맺음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 위기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보자고 말하고 싶다. 본당의 대형화와 익명화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2000년대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복음화 작업으로 본당을 소형화할 뿐 아니라 본당을 소공동체들의 공동체로 구조적으로 개편하여 신자들간에 밀도 높은 친교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겠고, 평신도들이 책임감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신자 모두가 복음 선포자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자각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평신도 모두가 직접 선교에 새로운 열의로 투신할 때만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이땅의 문화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문화의 복음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신자 공동체가 친교의 공동체로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화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초에 1984년의 2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주교단의 지도하에 하나가 되어 체계적으로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웃, 본당, 교구 그리고 전국이란 단계적인 선교 목표를 설정하여 사목했던 경험과 이를 통한 성과를 체험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00년의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2000년대의 복음화를 향하여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흐트러진 선교 열의를 다시 한번

---

모아보자는 말이다. 이번엔 선교 대책위원회와 함께 냉담자 전담위원회도 전담 기구로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만 교육하면 훌륭한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평신도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평신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개발 추진되고, 또 다양한 성서 모임이 좀더 활성화되어 교회 내의 다양한 평신도 활동 단체들도 성서 말씀과 연계된 회합으로 훈련된다면 소공동체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 1) 「평화신문」, 1995년 9월 24일자.
  - 2) 「평화신문」, 1995년 10월 1일, 10월 8일자.
  - 3) 「매일신문」, 1995년 11월 4일자.
  - 4) 「가톨릭신문」, 1995년 8월 20일자.
  - 5) 「평화신문」, 1995년 10월 8일자.
  - 6) 「가톨릭신문」, 1995년 10월 8일자.
  - 7) 요한 바오로 2세, 「제삼천년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 8) 같은 책, 32항.
  - 9) 같은 책, 1항.
  - 10) 같은 책, 1, 3, 9, 11항 등.
  - 11) 같은 책, 9항 참조.
  - 12) 같은 책, 10항.
  - 13) 루가 4, 16~21 참조.
  - 14) 「제삼천년기」, 12항.
  - 15) 같은 책, 13항.
  - 16) 같은 책, 18항.
  - 17) 같은 책, 21항.
  - 18) 같은 책, 17~21항 참조.
  - 19) 같은 책, 29항.
  - 20) 같은 책, 31~38항.
  - 21) 같은 책, 39~55항.
  - 22) 같은 책, 32~36항.
  - 23) 같은 책, 39항.
  - 24) 같은 책, 40항.
  - 25) 같은 책, 42항.
  - 26) 같은 책, 44항.
  - 27) 같은 책, 45항.
  - 28) 같은 책, 49~50항.
  - 29) 같은 책, 55항.
  - 30) 같은 책, 19항 참조.
  - 31) 같은 책, 18항 참조.
  - 32) 임병헌,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교회론적 기초”, 「가톨릭 신학과 사상」 8호(1992. 12), 85~88면.
  - 33)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19항.
  - 34) 임병헌, 앞의 책, 85~86면.
  - 35) 「평신도 그리스도인」, 8항.
  - 36) 같은 책, 14항.

- 37) 같은 책, 32항 참조.
- 38) 같은 책, 19항.
- 39) 선교교령, 2항 참조.
- 40) 「제삼천년기」, 21항.
- 41) 「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
- 42) 같은 책, 35~36항 참조.
- 43) 같은 책, 19항.
- 44) 교회현장, 9항.
- 45) 같은 현장, 1항.
- 46) 「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
- 47) 교회현장, 28항.
- 48)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0, 67항.
- 49) 「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 참조.
- 50) 위와 같음.
- 51) 김유철, “오늘의 본당 역할”, 「사목」, 159호(1992, 4), 15~25면 참조.
- 52) G. Caprile, *Il sinodo dei vescovi* 1974, Roma, 1975. 223면 참조.
- 53) 「평신도 그리스도인」, 34항.
- 54) 같은 책, 26항.
- 55) 같은 책, 26항.
- 56)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사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51항.
- 57) 「평신도 그리스도인」, 61항.
- 58) 다양한 성서 모임에 대한 요약 정리는 1995년 11월 26일자 「평화신문」 참조 바람.

---

( 27 쪽서 계속 )

- 26) 같은 책, 33항 : 교회현장, 8항 참조.
- 27) 「제삼천년기」, 34항.
- 28) 같은 책, 35항 참조.
- 29) 위와 같음 : 종교자유선언, 1항 참조.
- 30) 「제삼천년기」, 36항 ; 사목현장, 19항 참조.
- 31) 같은 책, 36항.
- 32) 같은 책, 38항 : 비그리스도교 선언, 2항 참조.
- 33) 「제삼천년기」, 42항.
- 34) 같은 책, 46항.
- 35) 「교회의 선교사명」, 55항.
- 36) 같은 책, 52항.
- 37) 「제삼천년기」, 50항.
- 38) 같은 책, 51항.
- 39) 요한 바오로 2세, 「구원에 이르는 고통」, 정한교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4, 30항 : 1988년 12월 8일 반포된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는 “광활한 인간 고통의 세계에서 ‘사랑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하는 염원이 발해진다(54항). 그리고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에서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들이 “교회의 활력의 표지이자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로서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다”라고 지칭된다(51항).
- 40) 「제삼천년기」, 53항.

# 보물섬으로 가자

## — 대희년을 앞둔 북한 선교의 자세와 방향 —

양성일 F. 살레시오  
수원평협 북한선교 담당 전문위원

### 1. 남북 불신의 골, 얼마나 깊은가

한 5년 전으로 압니다만, 로스앤젤레스의 큰 한인 개신교회의 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평북의 주였고 해방 이후 부모형제 처자를 두고 단신 월남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3남매 자녀를 사십 몇년 만에 상봉하는 고향 방문이었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개무량한 이산가족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독신으로 지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부인에게서도 사십여 년간 수절하였으며, 거기에다가 그 자매님은 수절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야말로 망부의 한을 담은 일기를 써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이 신의주로 가서 부모님과 형님의 성묘를 하고 형수댁에서 묵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판 순애보의 이야기로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어느 유명한 여류 TV드라마 작가는 감동한 나머지 연속 드라마로 집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저도 크게 감동한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 후 그 여류작가의 선언은 무슨 영문인지 이유없이 흐지부지 억제되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알



고 보니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모르나 그 목사님은 바로 북한의 아들에게 매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직책과 관련하여 같은 비공식 압력을 받았습시다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한탄하기를 이렇게 남북불신의 골이 깊은가. 도대체 이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누가 지어내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성직자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청년기에 가족과 헤어져 칠십대 노인으로서 고향에 간 사람이, 이제 내일이면 기약없이 떠난다, 이것은 마지막 길이다 했을 때 그 노인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이 막혀 심장마비로 죽게된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

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류 도덕의 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잔인한 마음씨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로 부터 나왔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불신의 골은 말할 수 없이 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불신의 원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2. 남북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남북불신의 원인은 물론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도 비롯되겠습니다만은, 그 근본 원인은 6·25전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면 남침에 대한 규명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패가 없이 휴전 상태로 40여 년을 보내고, 서로 이겼다고 했으므로 불신만 배양되었을 뿐입니다.

그같은 불신과 대결의 양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회화적 장면이 바로 휴전회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로 휴전회담이 없어졌지만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휴전회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판문점에서 양측이 군사 분계선처럼 줄이 쳐진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대표들 앞에 각기 탁상 국기가 놓여 있어서, 한쪽이 조금 높으면 다른 한쪽도 높이고 해서 결국 국기대는 한껏 높아져 모양이 이상해 졌습니다. 또 개회 발언을 누가 먼저 하느냐 양보 않고 싸우다가 결국은 동시에 하자 해서, 서로 큰 소리로 떠들어 대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아무 이득도 없는 말싸움만 하곤 했습니다. 6·25전쟁을 정사적으로 살펴 본다는 것은 너무 따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사적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떤 사학자들은 김일성 특유의 조급한 성품에서 빚어진 실패작이라고도 말합니다. 김주석은 집권당시 30대였고 상대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70대 노인이었는데, 이 박사의 권위에 비한다면 김주석은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박사는 기회 있으면 북진 통일을 외쳤고, 이에 불안을 느낀 젊은 김주석은 서둘러서 전쟁을 일으킨게 사실입니다. 앞서말한 사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말한 바 있습니다. 김일성의 평안도 기질적 서두름이 실패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경래와 연관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홍경래는 평안도의 다복동이라는 동네서 태어났는데, 인물은 출중했는데 너무 성미가 조급해서 쿠데타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는 옛부터 서두르는 사람을 보고는 너 왜 그렇게 다복동이 널어서 그러네하며 홍경래의 출생 지명을 조급함의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평안도 태생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지역감정이 아니라는 양해를 받을 줄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일성에 대한 다복동식 평가는 근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침한 당시 파죽지세로 서울을 점령하고 남으로 치달았는데, 대구로 쫓겨간 우리 정부는 야단이 났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인 이범석 장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군은 대답했습니다. 김일성이

대전에 도달해서 하는 걸 보면 안다. 주력이 모두 영남지방으로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대전에서 호남지방으로 주력이 갈리면 우리는 산다.

과연 다북동이 없어서 신이 난 김일성은 호남지방의 곡창이 탐이 나서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냥 영남지방으로 부산까지 밀어내면 호남곡창은 거저 떨어지는 것인데 김일성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김주석의 남한에 대한 도발 행위 등을 보면 모두가 조급하고 서두르는 데서 오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문점 도끼만행에서 부터 아웅산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호응을 얻어 남조선을 해방하겠다는 하나하나 인심 잃을 일만 저질러 왔다고 하겠습니다.

1·21사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습격해서 대통령만 죽이면 되겠지 했지만, 이도저도 안되고, 남한이 예비군을 만들게 하고, 만 오십살 아버지들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게 하는 국방력 강화를 실현케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북한을 불신케 해온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면서 왜 북한은 남조선 해방전략을 진작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회 현실이 언제나 혼란스럽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남북불신의 요소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도 반성삼아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성미가 급해서 모든 걸 한목에 해결하려는 습관

이 있는데, 그에 동조하여 우리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것이 올시다. 당시의 조문을 보면 남북 통일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불신하는 요소는 6·25전쟁 등 갖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우리를 보는 불신 요소는 7·4남북 공동성명 불이행에 크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군문제에서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것으로 알려졌고, 북에서는 남의 유신체제 갖추는데 이용당했다고 공언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남북이 서로가 불신하는 요인은 한마디로 복잡다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우리를 불신하는 차원을 높여서 미국하고만 상대하려는 태도를 굳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상태가 절정에 있고, 그들이 난관을 이기기 위한 돌파구라고도 보입니다만, 우리 입장으로는 민심이 너무 북한과 이반되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의 반세기를 분단 상태로 보내 민족적 비극이 영속화 하는 것이 아닌가 비통감마저 듭니다. 그렇게 되니 이상한 돌출적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도 남북화해나 교류가 가망 없다고 느낀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탈법적 북한방문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 3. 종교인 등 변칙 방북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이 곧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여러

갈래로 성립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같은 북한 방문 현상들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매우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 문규현 신부, 소설가 황석영 그리고 최근의 문익환 목사 부인과 청년학도 등 일련의 인물들이 가위 저쪽편에 선듯한 인상으로 북한을 찾아간 바 있었습니다. 특히 문목사 부인인 박장로가 김정일과 함께 어느 행사에 참가한 보도 사진은 참으로 어떤 그로테스크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과연 이들의 참 뜻은 무엇인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던져 이 어처구니 없는 민족분단 현실의 굳은 틀을 깨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 선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멀지않은 훗날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통일의 주인공 같은 존재로서 존경받을 날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그들이 대접받는 날이 오도록 기원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작가 황석영은 지난 93년 7월에 방북 이후의 방랑 생활을 꿰고 귀국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법정의 모두 진술에서 “북한 사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하며 우리 남한 사회 보다도 문제와 모순이 많다는 점을 알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이들 형제자매들과 앞으로 그이들 의도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녕 그렇다면, 그렇게 탈법적으로 방북하더라도, 한결같이 북한 편에 서서 남한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순을 그들 앞에서 준엄하

게 비판하고 그들의 감옥에 들어가는 인사도 혹간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이올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정부 안에서도 그들의 행동에 감동하여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통일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북하고자 하는 인사들은 그 정도의 비판 의식은 갖추고 가서 그들을 만나 토론하고, 정중하게 할말은 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 동안 개신교 목사님들은 상당한 수가 방북한 것이 사실인데, 미국에 있던 홍동근 목사같은 사람은 김일성을 하느님의 사도라고 극찬하고 아부함으로써 최근에는 김일성 대학 교수직을 얻어 현재 평양에 살고 있다 합니다. 김주석이 생존시에는 목사들을 만나면 “목사님 나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시구레” 하면서 목사들을 현혹하여 거기에 모두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 장충 성당이다, 봉수교회다 하고 종교자유를 내세우고 있어서 변화가 엿보이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앞서 김주석이 목사님들께 말한 노회한 전략이 내재해 있음을 우리는 먼저 간파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종교적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북한의 종교적 실태에 대하여

북한은 남한의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옹호하는데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약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즈음 독일 기술자들이 평양엘 갔는데 그들이 다니는 어느 뒷골목에서 어느 어머니가 남매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서 “애 바오로야” “애 마리아야” 하고 영명을 부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역할을 하는 직인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김일성 부자사진을 걸어논 아파트 방에 성경책을 놓고 예배를 보는 형식이 등장했고, 5, 6년 전에 장충 성당과 봉수교회 등이 등장한 것은 널리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귀순자들의 말로는 그 교회에 나타나는 신자들은 모두 노동당원이라는 분석입니다. 할 수 없이 벌려놓은 일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이 더 진지하게 진심으로 접촉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를 능가하는 진짜 신자들이 되어 북한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앞서 저는 북한의 종교적 실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들이 쇼윈도처럼 차려놓은 교회의 상황의 관찰보다도 그들의 사상과 국가 체계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요소, 말하자면 도용된 요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학술적 발표장이 아니므로 주마간산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김일성이 강반석이라는 독실한 기독교신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부주석을 지낸 강양욱은 외조부격이고 일제시대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분위기를 아는 김일성은 그가 집권할 당시 서북지방에는 특히 개신교가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터이므로 유사하게 대신해 줄, 다시말하면 교회에서 받는 위로 같은 것을 부여해야 한다고 철저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을 신격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아버지 원수님, 어버이 수령님하고 울부짖듯 염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만은 개신교 찬송가는 약 6백곡 되는데, 애상조의 김일성 찬가도 6백곡이 넘습니다. 그 노래들은 전능하신 수령으로서 인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사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국가 최고 절대절명의 구호를 알고 계시지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명귀입니다. 무릇 공동체 캐치프레이즈로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구호인데, 이 명귀도 사실은 구약 성서에 반복되어 표현된 귀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봉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받는 영생교리도 그들은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말 놀랄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현재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위 생명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김정일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적 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 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 또는 “인민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수령에게 무한한 충성과 복종을 다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론의 이론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하는 성경 귀절이 연상될 정

도로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일성은 마스레닌의 사상을 구약으로 제껴두고, 주체 사상이라는 신약성서를 창안해 내고 그 사상속에 생명체론 즉 영생론까지 접목시켜 국가 형태의 유사종교를 형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우주만물의 주재는 하느님”이라고 믿는 우리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또 뭣입니까? 아버지 수령이라는 교주를 신격화 하다 보니 나오게 된 억지논리라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를 만들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다 하는 현상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교육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놓게된 자기함정이라고도 보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스스로 놓은 이 교회라는 함정은 오히려 우리들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사막의 순기루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같은 나라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주교님을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유기하리만큼 탄압이 있었습시다만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종교 탄압도 현대적으로 발달하여 북한같은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전에 북한에 다녀온 성직자 한분이 그들은 교회에 갈 때 당국의 허가를 받고 간다고 했습

니다. 우리가 주일미사 전에 동사무소나 파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건 정말 경천동지의 혁명사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진정한 미사 참례를 염원하던 어떤 노인이 중국으로 몰래 가서 성사를 받고 돌아와서 참살 당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도 공산국가인 중국만 해도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구에서 중국 장춘으로 파견되신 젊은 신부님이 지난 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실 때는 잘하면 순교라도 하겠구나 기대하셨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순교는 커녕 배교하실까봐 겁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물론 힘들지만 기대하셨던 종교탄압 사태가 별로 없어서 실망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북한은 아직도 절벽과도 같은 절망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순교자 정신을 갖고있는 종교인이라면 북한은 마지막 보물섬 같은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 5. 북한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분명코 하느님의 정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물섬임에 틀림 없습니다. 눈을 아무리 비비고 보아도 북한같은 나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 하느님, 가짜 영생교리가 판치는 가짜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표절한 북한을 분명히 응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에 대해서도 역시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일찌기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은 북극과 남극인데, 거기 가면 펭귄이나 곰 밖에 없습니다. 어드반스캬프에 몇사람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거길 말씀한게 아닌 것입니다. 극동의 한반도 여기도 극은 극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이제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얼마전까지 한국이 정치, 외교 또는 행정적으로 적성국으로 규정된 것은 남아공과 북한 등 두 나라인데, 남아공은 만델라가 다녀갈 정도이니, 이제 남은 것은 북한 뿐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유일하게 남은 적성국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작태가 너무 나빠서 그들을 돕다가 정부도 여론에 혼이 나곤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나쁘게 보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민들, 힘없고, 억눌리고, 배고픈 대다수 동포들을 미워해서는 안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안됩니다.

흔히 이산가족들을 위해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만, 실상 남한의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부지런해서 부유해 지고 가족들을 가지게 되어 이제는 서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북에서 세상 떠난 목사님이나, 장기려 박사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문제보다 더욱 급한 것은 다섯 살 아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하다고 하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남한도 같이 거지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 20년 동안 내수산업

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남북이 동시에 국방비가 줄어드니 해 불만 하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동포들의 인간성에 관해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뇌된 그들은 포악하기 짝이없는 인간 부류들이란 해석입니다. 물론 일부 극렬분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말뚝 그대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토인비 같은 역사 철학자는 미래 인류의 희망은 아시아지역 공산국가의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성이 순박하여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장춘에 가신 신부님도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더욱 인간적이라는 말씀을 하더군요. 또한 북한의 노동력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확실히 보물섬인 것만 같습니다.

## 6. 대희년은 무슨 의미로 다가 오는가?

앞으로 5년 지나면 서기 2000년, 대희년을 맞게 됩니다. 50년에 한번 오는 희년을 그저 희년이라 하고, 이번에 맞는 천년 주기의 희년을 대희년이라 하는데, 이 대짜하나 붙이고 기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보통 희년의 20배의 감격을 더하여 우리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년 주기의 희년을 맞게된 우리는 너무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모두 건강을 잘 돌보아 대희년 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하고,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희년의 의미는 더욱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을 탕감해 준다는 뜻은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한다는 뜻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대희년을 앞둔 우리들의 사명은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일이라는데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주기의 대희년의 이슈는 바로 북한의 복음화와 해방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5년,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우리들의 북한선교 운동이 적어도 5년 전에는 시작되어야 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주어진 5년을 10년의 효과로서 모든 힘을 쏟아서 행동해야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부유해 지고 우리 교회도 물질사정이 좋아지면서, 정신적으로 만네리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민족화해 운동은 교회가 처한 만네리즘의 돌파구로서도 타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희년을 전후하여 제2의 도약, 제2의 르네상스를 맞게 될 희망이 큼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 이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동안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났다는 영적 체험자들을 관찰해 온 미국 버지니아비취의 심리학 박사인 조지 스코트 스페로우씨는 올해 "I AM WITH YOU ALWAYS"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저서를 낸 바 있고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주목할 내

용을 그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천년주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합한 여러 예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정통적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재림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 많은 설명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정통적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육신의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예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스페로우 박사는 이에 덧붙여서 그같은 가능성을 마태오 24장 34절을 들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메시아의 예언들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재림의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서기 2천년의 주님의 성령의 모습이 아닌 실제 육신의 재림, 참으로 놀라운 견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같은 일에 엄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상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희년에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고, 그 때 주님앞에 내세울 민족화해와 전민족 복음화의 선물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메시아의 예언들을 완성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의 마감으로서의 서기 2천년을 근거있게 부정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기대하고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80년에 미래학자들은 그 당시 1년의 발달상이 고대의 3천년의 발달과 맞먹는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더 급격해져서 아마도 1년이 고대의 5천년의 발전에 맞먹는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좋은데 인류 도덕의 쾌악한 모습으로의 급격한 타락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지구상의 현지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느님께서도 약간 서두르시는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을 교황이 되신지 33일만에 줄지에 하늘에 불러가시고 공산권 추기경을 교황으로 내세워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는 주역을 맡게 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 있었기에 말입니다. 하느님도 바빠지셨습니다. 우리도 바빠져야 합니다.

## 7. 결 론

이제 저의 강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남북문제는 너무 까다로워서 어느 측면에서 결론을 내도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태도는 항상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북한의 미증유의 수해에 대해 서울 교구에서 김추기경님 이름으로 5만달러를 적십자사에 갖다드린 것은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2백 5십만부나 발간한다는 한국대표적 신문이 이 사실을 인물동정란에 조그맣게 썼다는 것은, 그 신문이 북한 지원에 대한 찬반 의도가 너무 명백하여 아쉽기 짝이 없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기사는 뉴스밸류로 봐서 1면에 3단 제

목은 뽑아야 할 중요 기사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수해가 나자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5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는데, 이 액수의 산출 근거는 미국이 2만 5천 달러를 준다니까 우리는 그 갑절이다 해서 정해진 모양이지만, 미국의 그 액수는 정치 외교적 또는 상징적인 액수란 말입니다. 그것이 2천 5백만 달러라 해도 상관없어요. 의연금을 낸다는 의의니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5만 달러를 산정한 것이라면 이는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대표한 서울 교구의 5만 달러는 정부가 5만 달러 정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적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 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몇 백억원치의 쌀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므로, 민간에서 북한을 지원하도록 권한다고 성명하든지, 아니면 아예 큰맘 먹고, 이 기회에 북한의 속맘을 가늠해 보자해서, 제스처로라도, 수해로 다 죽게 된 판에 경수로 뭇이나, 우리 경수로 조금 밖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전적으로 달라붙겠다 했으면 참 속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 그런 형식 절대 안 받아 들입니다. 경수로라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한국인들의 참여를 꺼리는 판인데, 이북 팔도 강산을 다 누비면서 속속들이 관여하겠다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참 좋은 기회 놓쳤습니다.

아무튼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제안하면 북한이 거부하고, 우리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나서도 정부에서 대부분 거부합니다. 무슨 급조된 민족주의 단체에서 남북관계를 풀려고 나서지만 정부는 눈감짝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같은 정부 자세를

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대다수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깐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도 비교적 믿어 줄 수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더욱 신뢰받는 집단이 주도가 돼서 남북협력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집단은 바로 우리들 자신, 천주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자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같은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지식인 사회 계층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화해 위원회도 우리 교회안에 창설되었습니다만은, 관념적인 교회안 기구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서 범사회적인 기구로서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하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빨리 확립,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대민족회의 다 해서 거창하게 별리는 걸 좋아하니까, 남북협력 대민족 회의라 하든가 해서 다른 종교, 성당, 사회단체, 통일원까지, 또는 변칙적으로 이복가고 싶은 사람들도 다 포용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조직에서 간사기관으로 주도해 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크게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 교구에서도 북한 선교 운동과 관련하여 민족 화해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어느 디테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교구청의 체계 안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우리 통일성금 운동이 크게 성공해서 프로그램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수원 교구가 주도 하도록 성사되길 기도하고자 합니

다.

그렇다면 남북화해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남북통일 방안도 그것일 수 있고, 통일 봉사단을 만든다든지, 남북 표본 지역에 두레 공동체를 설치한다든지, 가능하다면 휴전선 안에 평화시도 만들자 해야 합니다. 남북 결혼상담소도 해서 신랑신부 교환하는 작은 일로부터 해서 통일의 문으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해야 할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모금 운동과 병행 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을 일은, 예를 들면 북한 신자들을 위한 꾸르실료 교육과정, 그들의 정서에 맞는 컬리큐람을 마련하고, 교재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단시일 안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꾸르실료 교육의 방식은 세뇌된 그들을 다시 세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신자 일반용 길잡이 책자도 빨리 편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맞는 성가, 기도문 등을 발췌해서 아무튼 한 책자에 집대성하자는 의도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두서없는 주제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들이 늘상 교회에서 하는 큰 일을 맡게 되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더러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일은 용케 잘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은 우리들의 열성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일성업이라는 것은 명백한 하느님의 뜻이므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의 운동은 반드시 주님의 가호아래, 크게 성공하리 ( 51 쪽에 계속)

## 나머지 99%는 하느님께서서……

끼아라 루빅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마태오 5, 44~45)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상식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도록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해줍니다.

미움의 정도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부인은 성격이 까다로운데다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부인과 같이 승강기를 타게 될 때면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혹은 30년 전쯤 나의 아버지를 모함한 일이 있는 그 친척이 나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과는 지금까지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학교에서는 당신의 뒷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가 당신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께 당신에 대한 일을 고자질한 이래 한 번도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한 때는 당신의 여자 친구였지만, 당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그 아가씨가 당신에게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속인 그 상인도 원수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와 노선이 같지 않은 이런 저런 정치인들을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제들과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사랑 받아야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사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증오의 감정을 좀 더 부드러운 감정으로 변화시키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무언가를 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루가 6, 27~2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명하셨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 주시면서 우리도 하느님처럼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가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분의 원수로서 죄 중에 있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한 1서 4, 19 참고)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도 참혹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워싱턴에 사는 흑인 소년 제리는 이 교훈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능지수가 아주 높아 백인 소년들과 함께 특수 학급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친구들은 그가 지능이 높다고 해서 그를 동등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인 친구들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날 모든 어린이들은 제리만 제외하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소년 제리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사랑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의 모든 ‘백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가톨릭 신자인 엘리사벳은 피렌체에 사는 소녀입니다. 어느날 미사에 참례하려고 성당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사벳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래인 한 그룹의 남자 아이들이 그가 성당에 간다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남자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단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성당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당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 아이들이 다가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신은 크리스찬이므로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가 증거해 보인 믿음에 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요일에 엘리사벳은 그를 비웃던 친구들이 모두 성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화해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상황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는가에 따라 우리도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판단할 기준을 하느님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 우리의 원수를 사랑합니다. 단지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까? 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됩니까? 생각만 해도 잠을 이룰 수 없다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몫을 할 때 나머지 99%는 하느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기쁨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

(48 쪽서 계속)

라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열성이 하느님의 시야에 들지 못할 미지근한 정도라면, 우리는 타교구나 타종교의 성공해 가는 모습을 구경만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열성이 달아 오른다면,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 우리

는 통일 선교 뿐만 아니라 통일성업에 있어서도 이니셔티브를 갖는 대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28회 평신도 주일에 - 총체적 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 인터뷰 - 한국평협 이관진 회장에게 듣는다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자)

「3백 30만 평신도들이 자신이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제 위치를 지켰더라면 최근의 엄청난 부정과 부패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평신도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28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한국평협 이관진(베드로) 회장은 지난 4년간 「도덕성회복운동」을 펼쳐온 주창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제구실을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세상, 기회만 있으면 부정부패와 손을 잡고 자신만을 생각해 왔던 사고방식이 민족적 수치심까지 드러낸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관진 회장은 「이번 기회를 온 국민이 회개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자」고 아울러 호소했다.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일삼아 온 위정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총체적 부패 난국의 원인에는 위정자들 못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지요」

특히 이관진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은 물론 기업인과 언론인 등 사회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참회하고 그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평협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탓이요 운동, 우리농산물 먹기운동, 우리상품쓰기 운동 등에 지난 4년간의 임기를 거의 할애할 만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던 이관진 회장은 이 운동이 사회속으로 좀 더 파급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런 현실을 보는 눈이 착잡한듯 「이 운동이 사회속으로 저변확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전해졌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한심한 부정부패는 이 사회가 또 본인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이 회장은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기 위해선 우선 교회가 가난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가난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난을 강조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사랑을 강조할 경우 교회의 외침은 외로울 수 밖에 없다」는 이 회장은 그것은 곧 교회가 이 사회를 밝히는 촛불로서의 수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교회가 사회의 잘못을 비난하고 질책하면서도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허례를 쫓고 과시에 눈을 돌리는 폐단은 이제 지양돼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쫓아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관진 회장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며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향해 투사하는 적극적인 평신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것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지녀야 할 절대절명의 소명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내 몫이 없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이 사회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평신도가 되자」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평신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1백%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때일수록 초기 교회 신앙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적 열의와 복음정신이 떠올려 진다는 이관진 회장은 「신앙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반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관진 회장은 이러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세포로서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 가는 아이를 붙잡고 절대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 엄마가 실제로 아이와 외출할 때는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무단횡단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이 지금까지의 우리 자녀에게 가르친 교육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커다란 충격속에 빠지게 되고 권한을 가질 경우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력만 아는 지도자로 군림하게 된다고 이관진 회장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부정부패의 경우 갑자기 주어진 권한을 감당할 줄 몰랐기 때문이라며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성서구절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보다 결손해지고 소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관진 회장은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가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했다.



## 청소년·청년분과 설치 계획

류덕희

「평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평신도들의 소리를 교구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2천년대 교회발전을 위해 평신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제11대 신임회장으로 류덕희(모세·59세·용산 본당) 전 서울 평협 부회장이 선출됐다.



8년만에 치러진 경선에 의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류덕희 회장은 취임 첫 소감으로 평협 활동의 각 지구별 및 분과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부회장제를 개선, 부회장들이 지구나 분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평협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의욕을 밝혔다.

특히 류회장은 「전임 회장들이 일궈 놓은 많은 업적들이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협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 평협을 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류회장은 서울대교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 평협 내에 청소년분과와 청년분과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을 전하고 이와 함께 평협의 기능을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추었다.

또한 류회장은 평협 내에 기획기능을 보강, 2천년대 복음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가장 절실한 문제인 평신도 교육문제 등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류회장은 평신도 교육을 이끌 교육팀을 평협 내에 구성, 지구별 평신도 교육을 시도해 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이어 류덕희 회장은 평협은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융화와 화합이 평협활동의 모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특기인 「화합과 협력」을 적극 발휘, 평협을 평신도 운동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소신과 똑심있는 기업인으로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류회장은 중견 제약업체인 경동제약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 서울 평협 정총 - 새회장에 류덕희 전 부회장 선출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장에 류덕희(59세·모세·용산본당) 전 부회장이 선출됐다.

서울평협은 1월 27일 오후 3시 가톨릭회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 임기 2년의 새 회장과 함께 손병두(요한 보스코) 씨와 김진석(실베스도) 씨를 감사로 선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을 승인했다.

각 본당 총회장과 교구단체장, 평협임원 등 1백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우일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 날 정기총회에서 평협은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새로 구성될 회장단에게 위임했다.

특히 이 날 총회에서 8년만에 부활된 경선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류덕희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당신의 도구로 뽑아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각 지역별·지구별 활성화, 본당과 평협간의 유기적인 대화 등을 통해 평협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평협 회장직을 맡아 왔던 이관진 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큰 대과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각 본당 총회장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평협이 막중해진 평신도들의 사명을 일깨워 줌으로서 2천년대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전임 이관진 회장을 상임 고문으로 추대했다.

한편 서울교구 평협이 이 날 정기총회에서 부회장단 구성과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류덕희 회장에 위임함에 따라 류덕희 회장은 박기주 지도신부 등과 협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총회에 앞서 봉헌된 미사강론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누룩의 역할을 평신도들이 다할 때 이 세상은 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서 평신도들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는 평신도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평협 도덕성회복운동 촉구 표어 담은 책받침 제작, 배포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 이관진, 지도 = 박기주 신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도덕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한국평협은 11월 13일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라는 주제의 제28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배포와 동시에 「도덕성회복운동 실천표어」가 담긴 책받침 20만매를 제작, 이날부터 시민들과 주일학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작된 도덕성회복운동 실천표어는 신자들이 평소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21개의 실천사항을 조목별로 제시한 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 13, 35)」 등 4개의 성서귀절도 함께 수록돼 있다.

도덕성회복운동 생활실천표어는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우리농산물을 먹겠습니다」「직장을 내 집처럼 가꿉니다」 등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신자들이 이 사회의 빛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도덕성회복운동 실천표어는 학생들의 책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벽에 걸어 놓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행동 및 생활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한국평협 이관진 회장은 「지난 4년간 도덕성회복운동을 즐기치게 외쳐 왔지만 그 외침이 사회에 파급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책받침으로 제작돼 배포하는 이 실천지침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자세와 생활양식을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제작배경을 설명했다.



## 제28회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 전국 배포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 이관진, 지도 = 박기주 신부)는 11월 19일 「제28회 평신도의 날」을 맞아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라는 제하의 강론 자료를 발표, 「도덕성 회복실천운동으로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한국평협은 이 강론자료에서 「각종 대형사고와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는 양심이 마비된 끝없는 탐욕의 결과가 빚어낸 산물」임을 전제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강론자료에서 한국평협은 「주일학교가 썰렁할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층 다수가 성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그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꿈꾸며 사랑의 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교회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라고 밝힌 이 강론자료에서는 「가정공동체가 튼튼해야 가족들이 본당생활과 사회생활도 제대로 신자답게 수행할 수 있다」며 가정공동체의 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요망했다.

강론자료에서는 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부정과 불의가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곧 복음을 살아야 한다」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평협은 「평신도는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의 여러 그룹과 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길에도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랑이 전제돼야 함」을 아울러 천명했다.

## 한국평협 가톨릭대상 수상자 결정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 이관진, 지도 = 박기주 신부)는 95년도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이금순(레지나(72), 원주교구 서부동본당) 씨와 배달순(요한(57), 부산교구 사직대건본당) 씨를 사랑부문과 문화부문 수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한국평협은 10월 28일 오전 11시, 평협 사무실에서 가톨릭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박정훈 고문)를 열고 최종후보로 추천된 12명 중 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사랑부문과 문화부문 수상자로 이같이 확정했다. 사랑과 정의, 문화부문 등 3개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가톨릭대상 중 이번

는 정의부문 해당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하고 2개 부문 수상자만 결정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에 갖기로 했다.

희생과 봉사로서 묵묵히 살아 온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 평협이 지난 82년부터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가톨릭대상은 종교에 관계없이 사랑과 정의 문화 부문에 공로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백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번에 가톨릭대상 사랑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금순 씨는 35년간 원주교구 제천지구 가톨릭 사회복지부 봉사자를 지원, 제천지역의 무의탁 노인과 환자, 극빈자, 장애인, 행려차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목욕, 이발, 세탁, 청소, 식사대접 등 굶은 일을 도맡아 큰 공로가 인정돼 사랑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문화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배달순 씨는 장편서사시 「성 김대건」을 현대시학에 연재하는 등 예술활동을 통해 신앙과 순교정신을 교회 내외에 알려 왔으며 부산시 김해에 소재한 순교자 조씨형제 묘를 성지로 개발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 배운 신부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배달순 씨는 시인으로서 신앙과 도덕성 및 인간성 회복, 환경보전 등을 촉구하는 7권의 시집을 발간, 시를 통한 전교와 이 사회의 인간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평협 상임위 결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9월 16일과 17일, 인천교구 부평 샬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각 교구별로 추진되고 있는 소공동체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교구 평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서울교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교구 평협회장과 전국단체장, 전국평협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교구별로 추진돼 온 소공동체복음화운동 상황을 평가하고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협의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고 판단, 이 운동의 활성화에 평협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평협 상임위원들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관건은 도농간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전국평협이 나서서 도농간의 교류와 나눔이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평협은 농촌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벽지공소의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위한 이동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도농분과위원회(위원장 = 류정묵)의 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내년부터 이동진료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상임위에서는 또 도덕성회복을 위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고 이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덕성회복 실천표어」를 선정, 개인과 공동체가 생활을 통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도덕성회복운동 실천표어는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등 개인과 공동체가 각각 실천할 수 있는 22개의 실천항목을 기록한 것으로 책받침 형태로 제작, 전국 각 교구에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공동체 복음나누기 7단계 기도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또 「환태평양시대와 한국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최기복학장 신부의 특강을 듣고 신학교 건립 현장을 방문, 가톨릭대학 건립상황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 날 특강에서 최기복 신부는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교회」라고 전제, 「우리 평신도들이 성인들의 장한 순교 정신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동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관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음화운동은 우리 교회의 존재목적이자 평신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하고 「소공동체 복음화운동을 통해 교회의 익명화와 냉담자 증가문제 등 우리 교회가 당면한 숙제들을 풀어가자」고 촉구했다.

## 한국평협 광복 50주년 분단 50년 맞아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를 담은 담화문 발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15일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 「위정자들은 더이상 정권유지차원에서 또 권력의 유지와 인기관리의 도구로서 통일문제를 다루지 말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라는 이 담화문에서 한국평협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변열강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국평협은 「광복 50주년과 분단 50년을 맞아 이제 더이상 민족의 진정한 광복을 외세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능동적 주체로서 통일을 앞당기는데 투신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한 한국평협은 『개인이나 가정공동체, 본당과 사도직 단체회합 등이 있을 때마다 「주의기도와 성모송」을 한번씩 바쳐줄 것』을 3백만 평신도들에게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한국평협은 「광복 50주년인 희년을 맞이해 우리 겨레도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물리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내면의 갈등까지도 해소하는 참된 의미의 해방을 맞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각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살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런 부분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광주문제에 대해 그 책임자들은 겨레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한국평협은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아울러 강조했다.

한국평협은 또한 이 시점에서 「교회는 통일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살펴보고 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의 교회인양 자처하면서 살아온 무관심과 교회 자신이 진정으로 일치를 살아 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평협, 중국 천주교 한국 방문단과 오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9월 26일 중국 천주교 신철학원(神哲學院) 원장 종휘이더(宗懷德, 78) 주교 등 중국교회 한국방문단 일행을 맞아 서울 남산 홍보석에서 오찬을 베풀고 양국 교회 사정과 평신도 활동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이관진 회장을 대리한 한홍순 한국평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평협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지니며 한국의 평신도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 천주교회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이 땅에 들어온 첫번째와 두번째 선교사가 중국인 신부들이었다는 점에서 중국교회와의 특수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종휘이더 주교 이하 이번 한국 방문단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또 중국교회의 특수성을 의식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시아의 복음화와 관련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교회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남교구장과 중국 천주교 ‘주교단 주석’을 겸하고 있는 종휘이더 주교는 답사에서 “한국평협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사시는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왔다”고 전제하고 주문모 신부의 순교터(새남터)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절두산 성지를 순례했다면서 “중국교회는 완전히 파괴된 백지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복구하고 부활시켜 나가는 중인데 한국교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휘이더 주교 일행은 대구 효성 가톨릭대 총장 김경환 신부 초청으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대구 대신학교를 방문하고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대구 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를 예방했다.

이 날 오찬 회동에는 종주교를 비롯해서 당산 교구장 리우 징 혜 주교, 린이 교구장 방 싱 야오 신부, 후룽강 교구 부주교 유에 후생 신부, 중국 신철학원 영신지도 조경진 신부 등 성직자와 애국회 부주임 유백년, 헤페이 공과대학 유지아 디 교수 등 평신도, 통역을 맡은 예수 성심회 소속 주매분 수녀, 그리고 벨지움 루벵대학 교수로서 유럽 - 중국 문화연구소 책임자인 헨드릭스 신부 등 9명과 한국평협측에서는 한홍순 부회장 외 박찬도 사무총장과 이운자 문화분과 위원장, 최홍준 홍보분과 위원장이 함께 했다.

## 한국 ME 하반기 총회

한국 메리지 엔카운터(대표 박상일·남총자 부부, 지도 김계춘 신부)는 10월 2, 3일 이틀 동안 서울 논현동 만남의 집에서 95년도 하반기 총회를 갖고 가정운동의 활성화를 논의했다.

## 서울평협 연도경연대회 개최

서울평협은 11월 12일 오전 9시, 명동대성당 문화관에서 제4회 연도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구별 경선을 거쳐 선발된 15개 지구 대표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열띤 경합을 벌인 이날 경연대회에는 참가자 및 관계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은 연도경연대회는 서울교구 전례위원회의(성교예규) 발간을 계기로 통일된 연도의 보급, 확산과 본당 연령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백남용(명동성당 성음악 감독) 신부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은 이날 대회에서는 5지구 청량리본당과 2지구 가좌동본당이 막중세를 보여 재경합을 벌인 결과 가좌동본당이 1등을, 청량리본당과 양재동본당이 2등과 3등을 각각 차지했다.

## 서울평협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서울교구 평협은 12월 15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금 8백만원과 함께 셋별 공부방, 우리집 공동체 등 불우시설 6곳에 각각 1백만원씩 6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 서울평협 임원 연수

서울교구 평협은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장충동 분도 피정의 집에서 교구장 사목교서와 평협 사업계획간의 연계방안과 평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임원 연수회를 마련했다.

평협 지도신부인 박기주 신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날 연수회는 회장단과 각 분과장,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4년간의 교구장 사목교서 검토, 평협 사업실적 분석, 평협 활성

화를 위한 그룹토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날 연수회는 평협의 나아갈 방향과 평협활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서울평협 창립 28년만에 처음으로 지도신부와 회장단, 각 임원들이 함께 참석,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평협활동이 즉흥적 비전문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평협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연수회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교구 공의회를 3년마다 개최, 평신도의 위상을 높여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됐다.

## 대구교구 평협 정총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9일 교육된 강당에서 95년도 총회를 갖고 (인재뱅크) 구성과 (가톨릭 사회봉사단) 설립을 골자로 한 9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평협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과 가족공동체를 위한 자연학습장의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전문 연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 사목회의 준비회의 개최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96년도 제1차 교구사목회의 준비회의가 1월 28일 교구내 2천년 대회년 준비 본당 위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과 주일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류승기 바오로 신부(교구 사목국 청소년 교육담당)는 “본당이나 교구의 신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출석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윤상씨(대구 죽전동본당 청소년분과장)는 ‘대구 주일학교 운영상태’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기존의 교리방식이나 교구, 교재들이 시대의 흐름과 청소년들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진부하다”면서 교구 차원에서 주일학교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원교구 평협 - 북방선교를 위한 세미나 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 박인환, 지도 = 김영옥)는 10월 3일 오전 10시 교구청 대강당에서 「북방선교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대별 통일통장갓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하는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각 본당 총회장과 교구단체장, 평협임원 등 1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종교현황」에 대한 여만철 씨의 강의를 비롯 「통일저축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그룹토의 순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세미나에서 수원교구 평협은 ▲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체계적으로 전 신자가 전개한다 ▲ 통일성금 저축운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2천년 대희년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촉진시키며 북방선교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통일통장갓기운동을 평협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한 평협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재 전개하고 있는 통일통장갓기운동을 「신앙선조들이 천주교회를 발상시킨 뜨거운 열정을 통일통장운동으로 승화시켜 가기로 하고 우선 각 가정에서부터 애국심과 애족운동의 실천장으로 통일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평협 세미나는 수원평협이 지난 6월 25일부터 통일성금저축운동을 각 세대별로 벌여 나가기로 한 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를 주관한 수원평협 박인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통장갓기운동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통일도 그만큼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통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필코 달성해야 할 우리의 과제요 의무인 만큼 통일의 첫 걸음이 될 이 운동에 모든 신자들이 솔선해서 참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원교구 평협 소식

1995년을 마감하는 수원교구 평협의 최대 이슈는 민족 화해를 위한 통일성금모금 운동이라 하겠다. 타교구의 단발적인 모금 운동이나 2차 현금식 모금 방식의 소극적 방법을 지양하고, 수원 평협은 향후 10년 동안에 1천 억원 모금 목표를 확정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돌입했다.

처음 이 목표가 발표되자 지방 교구의 규모로는 너무 허황되다고까지 비판을 받았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노태우씨 비자금 파동이 돌발하자, 붕어빵 장수도 2백원 짜리 빵한개 값을 2천억원이라 게시하는 냉소적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이 소용돌이 속에서 수원 평협의 1천억 모금 운동도 크게 진전은 되지 않으면서도 그 계수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각계 각층의 비자금이라는 음성 구조가 탈피 된다면 수원 평협의 모금 운동도 용이해 지리라는 전망이 서게 되어 이상한 동기에 의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통일성금 운동과 관련된 수원 평협의 중요 행사에 움직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족통일을 위한 서기 2000년 대회년 준비대회

지난 6월 25일 수원 교구의 대성지 천진암에서는 수원 교구의 각 본당 수만명의 신자가 운집한 가운데, 민족통일을 위한 2000년 대회년 준비 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모임은 수원 평협의 주관으로 진행 되었으며 김남수 주교, 강연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병렬 당시 서울특별시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김남수 주교는 특별 순서에서 각본당 총회장들에게 농협에서 마련한 통일성금 저축 통장을 일일이 나눠주면서 이 운동이 성공하도록 격려한 바 있다.

### (2) 북한 선교를 위한 수원 평협 세미나 개최

앞에 말한 통일 성금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3일 수원 교구청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북방 선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수원 교구 80여 본당 총회장과 부회장 등 150여명이 참가했는데 주제 강연으로는 귀순자인 여만철 형제와 평협 임원인 양성일 형제의 발표가 있었다.

여만철 형제는 주제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북한민을 상대로 한 선교 방식은 그들의 정서에 맞도록 준비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후 주제 강연에서 양성일 형제는 천년 주기의 다가오는 대회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남북민족의 화해는 바로 주님이 바라는 바이므로 우리 신자들은 모두 이 소명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 (3) 민족 통일기원 기도의 날 설정

수원 평협(회장 박인환)의 건의를 받은 수원교구 사제 평의회는 지난 11월 14일 매월 마지막 주일을 ‘민족통일 기원 기도의 날’로 하도록 결정하고, 이 기도의 날 미사에서는 남북한 교회가 합의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꼭 바치도록 아울러 의결했다.

이 기도의 날의 시행은 1996년 1월 부터이다. 이같은 일은 서울 교구의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 1회 미사를 본받아 확대한 조치로서 앞으로 각 교구로 파급될 것이 기대된다.

## '95 종교 지도자 회의 참석

박정훈 평협 고문은 지난 9월 14, 15 양일간 서울 ‘한국의 집’과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열린 '95 종교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KCRP, 회장 김몽은 신부)와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종교 지도자 세미나에서는 유엔이 정한 '관용의 해'를 맞아 각 종교 지도자 1백여 명이 한데 모여 종교간 이해를 높이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종교의 사명과 역할을 논의한 끝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천주교측에서는 KCRP 회장 김몽은 신부 외에 서울 대교구 총대리 김옥균 주교와 주교회의 사무총장 백남익 몬시뇰, 부산교구 김계춘 신부, 가톨릭 교리 신학원 김성태 신부 등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모두 10여 명이 참가했는데 서울평협 임원 중 육종권 지역분과 위원장과 최홍준 홍보분과 위원장, 여규태 제4지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으며 최홍준 파비아노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종교간의 교류, 협력문제를 다룬 제3분과 사회를 맡기도 했다.

## 광주교구 평협 정기총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6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6년도 평협 사업으로 교구 평협 25년사 발간 및 교구 평협회지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평협은 이날 회의에서 97년도 교구설정 70주년을 앞두고 교구 회년준비 및 대외사업에 박차를 기하기로 결의했다.

###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책	성명	본명	본당	주소	전화번호	비고
지도신부	장세현	미카엘	교구청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5-32 북광주우체국 사서함 28호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청 사목국	525-9004	
회장	김영진	토마스	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4동 934-10	363-4968	
부회장	조한유	베드로	주월동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43-4 무등파크 101-1106	653-0090 226-8700	
	천정민	미카엘	삼학도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0-408	44-6428	0631
사무국장	조광현	그라시아노	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46-42 6/2	363-0870 371-6061	
감사	김생기	보스코	지산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두암타운 112-705	261-2666 227-7128	
	안문언	야고보	중흥동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동산로얄 11-702	223-5667 227-7124	

## 마산, 현직교사 연수회

마산교구 교육국(국장·권창현 요셉 신부)은 1월 21일 창원 젊음의 집에서 교구내 신자 고등학교 교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 교사 연수회'를 열었다.

## 마산평협 정총 - 새 회장에 김서곤씨 선출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월 6일, 창원 가톨릭 사회교육회관에서 교구장 박정일 주교와 각 본당 평협 회장단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협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임기가 만료된 손춘수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김서곤(64, 베네딕도) 씨가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그동안 교구평협 부회장, 완월동본당 평협 상임위원 등을 맡아 왔고 현재 마산시 성지 여자 중학교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해 주요 사업으로 교구설정 30주년 행사에 관련된 각 평신도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회원동본당 노경석(율리아) 등 4명에게 평신도 선교상을 수여했다.

## 전주교구 평협 - 정기총회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14일 가톨릭센터에서 각 본당 평협 회장단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문치상(54 비오) 씨를 선출하는 한편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 평협은 96년을 2천년 대회년을 맞는 준비의 해로 삼기로 하고 순교 성인의 삶 본받기, 소공동체 활성화, 사회복지 활성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는 한 해로 삼기로 했다. 전주평협은 이 날 총회 후 이병호 주교가 함께 한 가운데 「전주평협 25주년사」 발간 기념 축하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문치상 회장은 「대회년을 맞는 시점에서 본당 활동이나 여러 단체의 활동을 적극 후원할 수 있도록 평협활동을 세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하고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함께 직능별·직장별 소공동체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교구 평협소식

### ○ 전북거주 중국동포 성혼부부 초청 결연식

전주교구 평협(회장: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유장훈(요셉))은 2월 10일 성운가든에서 「전북거주 중국동포 성혼부부 초청 결연식」을 가졌다. 중국의 명절인 춘절기간에 맞춰 마련한 이 행사는 전북의 농촌 총각과 결혼한 중국동포들을 위로 격려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며, 도내에 흩어져 사는 같은 입장의 부부들의 단합을 도모하여 애국애족심을 함양하고,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중국동포 성혼부부의 결연을 통해 농산물의 직거래를 유도하려는데 있었다.

전라북도 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27쌍 부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며 만남의 반가움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한국농촌복지연구원, KBS 전주방송총국·전라북도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전라북도지사·교육감을 비롯한 도내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금일봉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행복을 기원하였다.

#### ○ 제1회 생명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전주교구 평협(회장 :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 유장훈(요셉))은 제1회 생명의 날(5월 28일 : 5월 마지막 주일) 및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로 5월 27일(토요일) 코아백화점 광장과 중앙성당 정문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교구장 이병호 주교를 비롯하여 신부, 수녀, 평협임원, 행복한 가정운동 전북지부, 각 본당 봉사자들이 낙태금지 유인물과 함께 아기발 배지를 달아주었으며 생명보호 사진과 환경보전 사진을 전시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 ○ 가톨릭신자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초청 간담회

전주교구 평협(회장 :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 유장훈(요셉))은 지난 6·27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통해 지역일꾼으로 뽑힌 가톨릭 신자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초청, 9월 16일 오후 성윤가든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교구 내 신자 단체장과 의원(32명)들간의 상견례와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님은 “특별히 주민들의 손으로 선택된 지역대표이기에 부패구조에 휘말리지 말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기여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 땅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 김반석(베네딕도) 신부님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하식

전주교구 평협(회장 :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 유장훈(요셉)) 주최 김반석(베네딕도, 77) 신부님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 축하미사 및 축하식이 9월 15일 익산 나바위 천주교회에서 봉헌됐다. 평생을 오롯이 주님께 봉헌된 사제로서 삶을 살으실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발전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쏟으신 노력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평협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는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동창 강찬형 신부(대구대교구),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일가친척, 평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베풀어졌다.

#### ○ 전주교구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전주교구 평협(회장 :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 유장훈(요셉))에서는 평신도사도직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의식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평협 산하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면밀히 검토해 왔다. 수차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순수하게 평신

도들의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두고 25개 항목을 선정 조사하였다. 62개 본당에 1,015매를 배포하여 35개 본당에서 531매가 회수되어 설문지 회수율 52%, 본당 참여율 56%의 높은 비율을 올린 이번 조사 결과는 교구내 사제, 수도자, 각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 단위 제단체장 등에게 배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년」 발간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전주교구 평협(회장: 황의옥(파로), 지도신부: 유장훈(요셉))은 한국교회가 창립되고 전라도에 천주교회가 유항검과 윤지충에 의해 시작되어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본당 운영위원회(사도회)로 활동을 시작하여 1970년 8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25년동안의 자료를 모아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년」을 발간하였다.

## 창무극단 창단 순교자현양 박차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1월 14일)에서 제14대 회장에 선출된 문치상씨(54·비오)는 “대희년을 맞는 시점에서 본당 활동이나 여러 단체의 활동을 적극 후원할 수 있도록 평협 활동을 세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문회장은 특히 “가정과 사회복지, 생명·환경운동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우리농촌살리기운동과 직장별·직능별 소공동체 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회장은 또 “평협 내에 문화홍보부를 신설, 순교자들이 많은 이 고장에서 순교자의 넋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창무극단을 구성해 내년 교구 60주년 기념행사 때 순교자 창무극을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회장은 이 공연을 계기로 순교자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뜻을 내보였다.

67년 전북일보에 입사, 편집국장·논설위원·상무를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언론사에 몸담아 온 문회장은 최근 여성종합병원인 문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총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교구 가톨릭 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교구 후보 ‘숲정이’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광주평협 자료 1

광주대교구 평협은 이보다 앞서 95년 4월 22일, 23일 양일간 명상의 집에서 춘계 연수회를 가졌다. 다음은 각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제 1조

1. 농촌·도시 본당 공동체의 유대관계
  - 1) 단체단위 자매결연 본당 (1년 4회 봉사 방문) 활성화
  - 2) 단체 단위 회합 상호 교류 (만남을 갖자)
  - 3) 사목회 환경분과 설립 요망
2. 우리 농촌 살리기 구체적인 방안
  - 1) 여성들을 반복 교육으로 의식구조개혁
  - 2) 가격을 따지지 말고 우리 농산물 먹자.
  - 3) 좋은 방안을 교구 차원에서 정부건의 요망
3. 생명 공동체 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1) 기구조직
  - 2) 가톨릭 센터에 농산물 매장 결부 설립 (교구차원)

### 제 2조

1. 교구청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도시·농어촌 자매 결연을 맺는다.  
(전담 지도사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는 환경분과 같은 기구 구성)
2. 친척, 친구, 이웃 등 농촌방문 농촌실정을 알아보기  
본당 기구를 이용한 농·어촌 우리 생산물만 먹기 운동 전개 (신협이나 기타기구 이용)
3. 각 신자 가정에서 합성세제, 쓰레기줄이기 등 실질적인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실천하는 방법  
농어촌 실정을 아는데 본당 홍보가 중요하며 본당 사목회가 그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3조

1. 농촌과 도시 본당 공동체의 유대 관계  
금호동 : 조원 대부분이 도시 본당 소속  
전 세계의 환경문제와 연관  
도시 본당과 농촌 본당과의 자매결연 - 심신단체 등의 방문을 통해 연대감 형성  
광영동 : 90% 이상의 신자가 광양제철 직원이라는 특성  
각 부서와 행정단위(동)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농지를 대여받아 경작하는 방법이

실시되고 있음 (신심단체나 사목분과와의 결연)

신설 분과를 만들어 적극적 참여

월곡동 : 신안 압해도 본당과 자매 결연 - 재정적 지원

농번기 때 인력동원 - 일손돕기 (자매결연 본당에 1~2일 정도 일손 돕기)

농성동 : 영암 본당과의 자매결연

재정적 지원 (본당 신축시 물건 파는 것을 도와줌)

의료봉사 등을 현재 하고 있음

도시 자매들이 농번기 때 일손 돕기

레지오 활동을 적극적이고 살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환

남 동 : 물질을 도와주는 시혜의 차원이 아닌 '나의 일을 내가 한다'는 식의 정신으로 "농촌 살리기위원회"의 결성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위원회 조직의 차원으로 발전

북 동 : 완도 본당과의 자매결연

농번기를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특산품을 본당에 가져와 팔아주는 방법 시도 - 유대감 형성

개인적 유기농법이 아닌 본당 차원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시범 경작한 후 개인적 차원으로 확산

광천동 : 농촌의 일손돕기

양 본당의 사목협의회 간에 구체적 조직 형성 (구체적 활동 계획)

(협의체 구성) - 기존 조직을 활동

새로운 부서(환경부)를 조직하여 실무 담당

해 남 : 도시·읍 소재·농촌(공소)의 지속적 연락하에 꾸준한 활동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

기존 조직을 벗어나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신부님 차원이 아닌 평신도 자체에서 활성화 되도록

농성동 : '광록회'의 활동 예시

회원조직 → 견학 → 먹거리 구입

## 2. 우리 농촌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농성동 : '광록회', '가톨릭농민회'를 통한 먹거리 구입

단체들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

해 남 :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의 경제성

경작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결연 아래 보장된) 경제성 보장

남 동 : 수입 농산물 안먹기 운동부터 전개

해 남 : 유기농법의 전문 농민이 있음 - 실제교육(농민들에게 교육이 필요)

농성동 : 깨어 있는 여성 - 식탁위의 먹거리

도시·농촌과의 교육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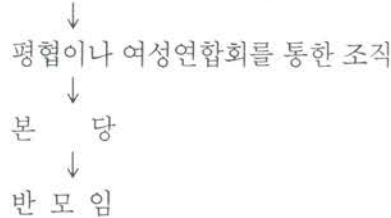
교구 분당 조직을 통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

3. 생명 공동체 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교육을 통한 유기농법 홍보 - 회생을 통한 시도

우리농산물 사먹기

조직구성(생명공동체) - 교구 차원에서 조직 시도



제 4조

정리 내용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제 5조

1. 도·농 유대 관계

깨우침 = 실천 (위탁영농 - 위탁건강)

신뢰성 바탕 (일본구주조합 농약 효력)

- 무공해 증명

- 도시분당 유희인력 제공

2. [밀] 씹어야 거둬나는 평범한 진리 행동으로 실천

- 화분, 유희지, APT, 꽃밭 정원 직접 체험 농촌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 화순 황영철씨 농수산부장관표창, 다수확상, 농약과다로 쓰러진 후 나는 도시민을 살해하고 있다고 깨우치고 → 유기농법으로 전환

3. [장성 한마음 공동체]가 실패한 이유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 불신 - 값 극복

공해 유·무 불신

광주대교구 평협은 95년 10월 28, 29일 양일간 광주 까리따스 교육관에서 평협의 위상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계 연수회를 가졌다.  
다음은 분단별 종합 토의 내용이다.

제 1분단.

**평협의 위상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평협과 본당 사목회 및 신심운동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등)

- 1) 교구 평신도 협의회가 기구개편 되어야 한다. (안내·설명 확대)
- 2) 본당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재정확충)하며 년 1회에 극한할 것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
- 3) 우리 평신도가 자기변화를 하여 평협이 위상 정립이 많이 될 것이다.
- 4) 사목회가 협의체제가 아닌 의결·집행기구로 되어야 한다.

- 1) 교구 평협 기구 개편 확대
- 2) 교구 평협 재정확충 - 본당차원 지원확대
- 3) 본당 사목협의회 활성화 - 자기 임무 완수
- 4) 교구평협·본당 사목협의회 협의회가 아닌 협의의결 집행기구로 전환 - 책임

1. 사목회 직분만 가지고 있지 시키는데로만 하고 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여 자기분과의 계획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사목회장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신부님께 끌려가고 있다. 사목회장은 목적성취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목회 임원이 임무결여로 역할담당을 못하고 있다.  
본당 안에서라도 사목회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4. 교구방침에 본당방침을 세워서 미사후 신자들에게 발표하고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으로 민주적으로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5. 사목회의는 보수적보다는 진보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목회의 구성은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사목회는 봉사직임으로 격려와 협력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6. 바람직한 방향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을시는 각 본당에서 젊은 분을 한사람 씩이라도 참여시켜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여야 하겠음.

사목회는 교구 액션단체쯤은 파악하고 본당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활동하여야 하겠음.

본당에서의 많은 교육을 실시.

## 제 2분단.

### 본당사목회의 이상적인 기능과 바람직한 활동 방향

#### 1. 이상적인 기능

##### 1) 순 천

직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신부님이 시키는데로만 하고 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여 자기 분과의 계획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 2) 여성분과장

사목회장의 이슈가 없기에 신부님께 끌려가고 있다.

사목회장의 목적성취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곡 성

사목회 임원의 임무결여, 역할담당을 못함 - 본당 안에서 재교육 요망

##### 4) 호남동

교구 방침에 본당 방침을 세워서 미사후 신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으로 민주적으로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 5) 강 진

(문제점을 제시하여)

평협에서 사목회장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본당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신부님 들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였으면 좋겠다.

##### 6) 염주동

사목회의는 보수적 보다는 진보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사목회 구성은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 7) 주월동

본당에서는 사목회장 선출을 교황님 선출방법으로 하고 있음.

사목계획서는 사목회와 신부님과 함께 작성.  
각 분과의 1박 2일 피정모임을 갖고 편성함.

8) 방립동

본당의 모든 일을 사목회가 주관해야 한다.

한 두 사람이 결정하여 할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목회 임원 전체의 주관으로 결정하면 성공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광천동

각 분과별로 문서철을 작성하고 기안하여 사목회장 신부님 결제를 득한 후 문서를 발송한다.

10) 주월동

선거방법도 좋으나 낙선자의 마음도 생각 분열을 초래하므로, 이상적인 사목활동을 할려면 말단 액션단체에서 일을 해보고 이상적인 기능은 신심에 바탕을 두고 봉사해야 한다.

신앙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진월동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은 문제가 있다.

사목회에서 연구 노력하여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면 신부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음.

제 3분단.

## 평신도 인재양성을 위한 본당 차원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관하여

1. 결 론 :

- ① 신자 재교육 확대 - 동기 부여
- ② 인재 양성 교육 지원 - 위탁교육
- ③ 인재활용 - 본당내 활동 조건 마련
- ④ 젊은 교회만들기 - 사목회의 고령화 방지
- ⑤ 본당 신부님들의 헌신적 지원

2. 방 안 :

- ① 유휴 인력 양성 - 연세드신 분들, 정년퇴직 후의 분들께 일할 기회 마련
- ② 젊은 사목임원 육성 - 실수 등에 관대 질시 등은 위로로
- ③ 신자 재교육 기회 마련 -
  - 성서 대학
  - 기존단체 교육 강화·확대
  - ME·울뜨레야·전례분과 등

- ④ 교리교사의 활용화
- ⑤ 각 모임(액션단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과 동기 부여
- ⑥ 사목회의 등 임원들의 토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3. 본당 사례

#### 1) 광천동

- ① 신자 재교육 11월 중 4회(이인복 교수 등 초청)
- ② '95 성체신심세미나 9주

#### 2) 북교동

- ① 청장년 재교육 : 6개월  
참석률 낮음

#### 3) 해 남

- ① ME팀 교육 확대
- ② 본당내 성서대학 개설 - 주부팀 30여명  
직장팀 어려움
- ③ 공소회장 분기별 교육
- ④ 울뜨레야 회원의 활용

### 제 4 분 단.

##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교구 및 본당차원의 준비에 관하여

1. 자신의 성화부터 - 신자재교육을 통해 쉬는 교우들을 줄여나가자. (교회·가정에서)
2. 선교활동 - 외적인 어떤 행사보다도 내적 충실
3. 모든 신자들의 레지오 단원화(가장 적극적 활동)
4. 예비자 교육 충실화 - 레지오 단원
5. 친교를 통하여
6. 기도하는 교회 - 교육하는 교회
7. 믿음으로 심어주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신심교육의 필요성)
8. 교회의 본래의 역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본당에서 불우이웃을 위해 본당 예산의 10%로 할애하고 있는가?
  -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사랑이 넘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 교구 차원에서도 외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겠다.
- 80년대 사회정의를 부르짖었던 교회가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 한사람이 한사람씩만 전교운동 전개

9. 신자 재교육의 교재의 필요성

친절의 생활화

10. 본 당 : · 신자와 사제의 일체가 되지 않아 쉬는 교우들의 증가

- 사제들의 적극적인 사목이 필요 사제들의 권위의식 배제
- 지도자들의 교육증가 -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주제를 선정)
- 부모들의 솔선수범(성서공부 - 동기유발)

11. 교세확장의 필요성(10% 증가 운동)

- 외딴 교우 극소화
- 선교분과의 예산증액
- 쉬는 교우 회두화
- 성공사례집 발간

① 사제들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제들의 각성이 필요

사제 평신도들의 각성 필요

② 정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공부하는 신자의 모습

기본 교리 및 교육의 필요성 절실하다.

신자재교육에 많은 투자

12. 사목회의 역할변화 - 사목의 주관자 역할

조직관리가 미흡 - 구심체가 필요

본당차원의 친교가 미흡

13. 근본원인을 치유 - 내적으로부터 우리나는 신앙생활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거듭나야겠다. 구체적인 교구차원의 준비는 교구에 맡기고 우리들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회년을 맞아야겠다.

14. 외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본당, 교구가 되자.

- 신자 재교육의 필요성 - 예비자 교리부터
- 선교활동 - 선교분과 예산증액
- 신자 10% 증가운동 - 외딴교우 극소화 쉬는 교우들의 회두
- 사회정의에서 - 불우한 이웃에게 관심
- 교회 본래의 역할 : 예산 10%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할애

(주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교회

- 친절의 생활화
- 신자와 사제의 일체운동이 필요
- 2000년대 성체대회의 붐 조성
- 모든 신자들이 레지오 단원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믿음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겠다.
- 신자재교육과 인재양성에 필요한 적절한 교재 필요
- 사제들의 적극적인 사목이 필요
- 지도자들의 교육횟수를 증가해야겠다. (분기별 실시)
-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원인 치유 - 내적으로 우러나는 신앙생활  
성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자 육성

- 교 구 : 1. 선교활동의 성공사례 발간  
2. 신자 재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재를 준비



## 생활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둔 오늘은 스물 여덟번째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 전래력상 막바지에 이른 오늘을 평신도의 날로 정해서 이를 기념하는 것은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추구' (교회헌장 31항) 하도록 불림을 받은 우리 평신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생활로써 이를 증거해 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반면 냉담자는 날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현재의 통계를 보면, 천주교 신자가 333만 8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51%에 이르지만 행방불명자와 냉담자를 합해서 교회와 멀어진 사람이 24.6%나 됩니다. 교적에 있는 네사람 중 한 사람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가 썰렁할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층 다수가 성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입니다.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온갖 유혹과 내면의 갈등, 그리고 현대문명이 가져온 폐쇄와 고립의 문화로부터 이웃을 필요로 하고 대화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문화를 가구는 젊은이가 되도록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꿈꾸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평신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본당과 단체, 어디서든지 청소년의 눈으로 청소년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특별한 방법으로 젊은이들 안에서 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5년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낸 사도적 서한')

사도 성 요한은 그 첫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1요한 2, 13 이하)

젊은이들의 감수성은 정의와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 인식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

은이 여러분은 세상의 불안과 기만, 고뇌와 공포에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의 처지에 따르는 여러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46항)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대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청소년들에게 보낸 메시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증언해야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몇해 전부터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를 앞두고 펼쳐 나가는 이 운동은 각 본당이 ‘소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안’을 근거로 한 가정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가운데 각자 삶을 복음의 장(場)으로 삼아서 소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희망인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지혜의 은총 - 노인들, 여성고 남성, 이 모두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정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평신도의 의무가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40항) 그러기에 가정 공동체가 튼튼해야 가족들이 본당생활과 사회생활도 제대로 신자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하느님 백성 중 절대 다수인 우리 평신도들이 잘 살아야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평신도가 많아야 훌륭한 성직자, 덕성 높은 수도자가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부정과 불의, 탐욕과 퇴폐가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 22, 37~40)고 하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해 드릴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매순간 형제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 자신을 내어 주면 줄수록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87 주교 시노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와 세계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과 소명’ - 평신도 참석자 끼아라 루빅)

예수께서 일러주신 ‘새 계명’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15, 12)

항구함을 지니고 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서로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에서처럼 성령께서 깃들어 계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 중에 잘못 가고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체 안의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살아 있다면 그 형제를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의 여러 그룹과 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의 일치성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단체나 운동들을 자기 단체처럼 사랑하고, 다른 본당과 다른 교구, 다른 나라까지도 내 본당, 우리 교구, 우리 조국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원의와 노력이 따라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는 길에도 지역간의 감정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 35) 하신 그분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표지(標識)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형제 자매들과 쉬고 있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넣어 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쁘게,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똑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작금 각종 대형 사고에 이어서 고위 공직에 있던 인사들의 비리와 부정 부패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 도덕성을 회복하자

제28회 평신도의 날

1995. 11. 19.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요한 15,27)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6·27 지방자치 선거에 즈음한

###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

국민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는 27일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실로 중대한 국가적 행사이며 주민자치(住民自治)의 역량을 보여 주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권이 주민(住民)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엄격한 감시자가 되어서 공명선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자(選舉權者) 누구나 빠짐없이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껏 살면서 불의(不義)를 배격하고 하느님의 법(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문화를 가꾸는 사람을 뽑읍시다.

근면, 검소, 절약하고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실한 사람을 뽑읍시다.

선거에 돈 안 쓰고 거짓말 안하는 사람을 뽑읍시다.

진실한 사람, 약속을 제 때에 지키는 사람을 뽑읍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역적인 연고나 학연(學緣), 혈연(血緣),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진리(眞理)와 정의(正義)에 기준을 두고 사랑의 원칙에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성령(聖靈)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겨레, 우리 나라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요한 3, 21)

1995년 6월 4일 성령강림 대축일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호소문

이 땅의 하느님 백성과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 인륜적 패륜범죄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생명경시의 죽음의 문화현상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부(富)의 축적을 통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황금만능의 배금사상에 빠져 인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가치관이 뒤바뀌는 가운데 최소한의 도덕규범마저 실종되었으며, 그것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대구에서 상임위원회를 갖고 전국 15개 교구평협 회장단과 단체장, 임원들의 뜻을 모아, 94년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3백만 가톨릭 형제 자매와 국민 모든 분들께 도덕성 회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은 신자들부터 과연 영세 때 약속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기쁜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어두운 사회 병리현상을 개탄하면서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천주교 평협이 거듭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일반적인 도덕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뛰어올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바탕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흔히들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판단은 법을 이루지 않습니다(〈진리의 광채〉 60 참조). 양심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어떤 자주적이고 유일한 원칙이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아들이 비뚤어진 양심의 판단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양심이 분명 잘못된 것일 때에는 그 존엄성이 손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심이 손상될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는 처지가 나 자신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닮하기 전에, 우물 안을 흙탕물로 바꿔놓은 미꾸라지를 닮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과 나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참되고 선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는 양심이 되라고 스승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 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 12. 2)

형제 자매 여러분!

불멸의 진리를 바탕으로 착하게 사는 공동체.

그분의 사랑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도덕성 회복은 바로 나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이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95. 4. 23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이 땅의 복음화와 겨레가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의 호소

—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에 즈음하여 —

이 땅의 우리 겨레는 자비로우신 어머니 성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 아래 1945년의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해 민족해방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교회도 나뉘어져서 한쪽은 침묵을 강요 당했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했으며 분단으로 인한 겨레의 고통은 한(恨)이 되어 반백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도록 가시지를 앓고 있습니다.

가난과 독재와 불의와 비리로 이어진 고속성장의 한계는 삼풍 참사로 드러나고 말았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수 많은 형제 자매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반세기를 맞이한 올해를 흔히들 회년(禧年)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회년은 50년마다 맞이하는 ‘해방의 해’를 의미하고, 노예가 된 유대인은 회년이 되면 해방(레위 25, 10) 되었습니다. 회년의 가장 의미심장한 귀결 중 하나는 곤궁에 처한 모든 주민들이 모두 자유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전체 해방입니다. 그런만큼 광복 50주년인 올해 우리 겨레도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해방 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내면의 갈등까지도 해소하는 참된 의미의 해방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맞아 회년의 기쁨을 합당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살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죄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에 앞서 불목한 이웃을 찾아가서 화해해야 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마태 5, 23~24 참조)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런 부분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광주’ 문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그 책임자들은 겨레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될 때 그 엄청난 상처도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교회는 통일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반쪽만의 교회가 전체의 교회인 양 자처하면서 살아온 무관심”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일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 자신이 진정 일치를 제대로 살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물질과 향락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이 복음적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스스로 복음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를 일으켜야”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1994년도 사목교서)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까닭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으며 통일을 앞당기지도 못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분의 존재를 복녘 동포들에게도 알리는 새로운 선포가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으나 땅이 척박해서 (마태 13, 1~9; 마르 4, 1~9; 루가 8, 4~8) 그 씨앗이 자라지 않고 있는 그곳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존중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인간 존중은 사회구조 자체의 본질 요소이며 기본적인 판단기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39항)이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도덕성의 문제는 남녘의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 권리가 값진 것이면 남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부족합니다. 각종 대형 사고가 붓물 터지듯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우리 사이에 팽배해 온 이기심과 부정부패 탓입니다. 1년에 150만명씩 태아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반 인륜적 살인 행위가 오늘날 그토록 엄청난 살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의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역감정 하나 극복하지 못한 채 어찌 통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는 인간이 만든 분단의 악(惡)을 걷어내고 그분과 일치해야 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인간과의 화해를 넘어서 인간과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레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번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레가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다면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겨레의 앞날을 밝히는 빛이 돼야 할 것입니다.

광복 50주년과 분단 50년을 맞이한 오늘,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진정 이 땅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먼저 남과 북의 위정자들은 이제까지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다루어 온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차원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정자들은 통일을 권력 유지와 인기 관리를 위한 도구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변 열강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걸림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이 바로 주변 열강들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는 만큼, 열강들은 한민족의 통일에 진심어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50년 전 이 땅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 저질러졌듯이 이 민족의 진정한 광복을 또 다시 외세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은 바로 능동적 주체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 투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호소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또는 본당이나 사도직 단체 회합이 있을 때마다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한 번씩 바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느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차별없이 모든 이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살 때,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복음화는 이뤄질 것입니다.

“오 자비의 어머니시여, 우리는 이제 당신의 사랑 가득한 마음에 이 땅의 온 겨레와 교회를 맡기 나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4. 5. 6 명동대성당에서)

1995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천주교 신자가 된 부담

김 세베리노  
서울평협 홍보분과위원

감격과 흥분속에 세례성사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지도 새삼 되돌아보니 꽤 여러 해가 지났다. 백번 천번 생각해도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항상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고 있다.

물론 내가 신자가 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의 선택함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지만 좁디 좁은 인간의 소견머리로 꼭 내가 똑똑하고 잘 나 「보편 교회」의 한 식구가 된양 착각 속에서 하루 또 하루를 맞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 이지만 이렇듯 긍지와 자랑을 가슴에 잔뜩 품고 살다가도 나는 종종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담감을 때로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목주반지를 끼고 다니는 주위의 형제나 자매님들은 보게되면 신앙적으로 존경스럽고 경건한 마음까지 든다. 따라서 나는 예쁜 목주반지를 하나 끼고 다니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끼지만 그만 그놈의 부담감 때문에 섣뜻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목주반지를 끼면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공공연하게 남에게 알리게 된다.

버젓이 목주반지를 끼고 남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도무지 끼고 다닐 엄두가 나질 않는다. 영세 때 선물로 받은 은반지, 가까운 수녀님으로부터 영명축일 선물로 받은 금반지, 또 어느때가 피정을 갔다가 내 자신이 직접 사게된 예쁜 철제 목주반지 등이 집에 있긴 하지만 이들 반지를 각각 이틀 이상 끼고 다니질 못했다. 남들, 특히 가톨릭교회에 비우호적인 타종교 신자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이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들 목주반지를 빼서 서랍에 간직하고 만다.

신자와 신자 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가톨릭교회의 훌륭한 전통인 대부모·대자녀 제도만 해도 그렇다. 나는 아주 끔찍히 운(?)도 좋게 신앙생활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대자가 되었고, 그분의 부인은 우리집 사람의 대모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집 아이의 대부가 되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신의 은총인가? 물론 견진 대부모 역시 모두 같은 분들이다. 나는 대부와 자주는 못하지만 이따끔씩 만나 술도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일년에 한번 정도는 두집 식구가 모두 함께 모여 식사라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의 대부를 서는 일에 실로 인색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역시 부담감 때문이다. 이 때까지 나는 세사람 직장 동료 또는 후배의 대부를 썼다. 그런데 이 세사람 중 한 사람은 현재 냉담중이고 다른 두 사람의 신앙 내지는 사회생활은 전혀 나의 통제 밖이다. 나의 영향력 내지는 통제 밖에서 이들 세 사람의 대자는 세상을 살아가고있다. 대자를 삼았으면 그들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그들이 복음안에서 살아가도록 항상 보살피고 이끌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도대체 내가 대부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이에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 남의 대부가 되는 일에 나는 더욱 인색치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9월 어느 날의 일이다. 그날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않은 안성 근처로 낚시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운수 나쁘게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했다. 상식에 근거한 순간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잠시후, 가해 트럭 운전수와 함께 나타난 교통순경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였다. 우리쪽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불문곡직하고 상대방 젊은 운전수에게 차를 고치고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했다. 실로 거액(?)의 돈이 상대방 차와 우리 차의 수리비로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백프로 우리가 잘한 일도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십중팔구 양쪽이 반반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보상문제가 모두 마무리된 뒤였다.

사건을 저질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 뒷유리 아래쪽 한 가운데에 당당하게 붙어있는 붉은색 바탕의 하얀 문양의 세계성체대회 스티커를 바라보았다. 이 스티커도 항상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밝은 대낮 큰 길거리였지만 잘 잘못을 큰 소리로 따지고 남들처럼 필요하면 때에 따라 걸죽한 욕도 퍼붓고, 경찰의 일방적인 편견도 성토하고 했더라면 사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차를 타고 다닐 때 마다 늘 부담감을 던져 주고 있는 이 성체대회 스티커. 이 스티커를 계속 차유리에 부착하고 다니는 한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된 부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며 세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어두운 고해(告解)

최 헌 베드로  
방송작가

그와 그의 아내를 알고 인연을 맞게 된 것은 몇해 전 겨울이었다.

밤새 소리없이 쏟아진 함박눈 때문에 성당 지붕과 마당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성당에 찾아와서는 손에 비를 들고 이른 새벽부터 눈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갖게 되는 사이에 그의 아내가 성당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일에 발벗고 나서서 소리없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나이는 마흔을 조금 넘었고 그의 아내는 마흔이 채 못된 나이였다.

어쨌든 이들 부부는 열심한 신자임에 틀림 없었다.

그는 사도회나 반모임 때마다 빠짐없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었고 그의 아내는 아내대로 구역장으로서 구역 일을 잘 챙겨 한 때는 구역장 가운데서도 가장 믿음직한 구역장으로 인식되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교우들간에는 흠이 없는 상냥한 자매로 통했었다.

그런 그녀가 장마비로 모든 이의 나들이가 뜸해졌을 무렵 자취를 감추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에 함께 사는 이웃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려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를 번번

히 만날 수 없게 되자, 문제의 실마리는 걸잡을 수 없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말았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진채 안개 속으로 묻히고 만 것이었다.

“내 돈! 내 돈! 그돈이 어떤 돈인데…….”

그녀의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의 소리는 비탄에 젖은 질은 아우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 하나 같이 모두가 그녀에게 물린 것이었다.

수백만원에서 이천만원까지, 어느 누구는 일 억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뜯기고 만 것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제 날도 아닌 전날에 갚다 주는 바람에 친척의 돈까지 그것도 이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소개까지 해준 사람은 방바닥을 치면서 반죽음이 되어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연줄 걸리듯이 엉킨 채 당하고 만 상태였다.

“이것 봐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자기 아내가 집을 비우고 나간 것 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을 나간지 일주일이나 넘는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나갈 때는 자기 남편과 의논 한마디 않고 몸을 숨기는 여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답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행방만은 알리고 가지 원수진 남편도 아닌데 말 한마디 않고 갔다

면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그녀에게 돈을 뜯긴 여자들의 항의는 이처럼 공통된 의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가출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바가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그리고 아내가 남의 돈을 빌려 이자를 달마다 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는 끝내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돈을 뜯긴 부인들은 더욱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에도 패심하지만 아내의 행동에 눈꼽만큼도 아는 바가 없다는 그의 말에는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대충 주름 잡아 돈을 그녀에게 빌려준 사람들은 십여 명에 가까웠고 뜯긴 돈의 액수는 삼억원이 훨씬 넘었다. 거의 다 돈을 뜯긴 사람들은 교우들이었다.

구역장에다가 친절하고 상냥했던 그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큼 믿음에 빈틈이 없던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돈을 뜯긴 부인들의 울분은 그녀가 같은 교우였다는 점과 그것을 미끼로 꿀떡같이 자기들을 믿겠끔 행동한 것이 너무도 계획적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것은 같은 교우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을 믿게 한 후 자기들의 돈을 훔친 것과 다름이 없다

는 결론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판 유다에 못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사라진 그녀를 두고 뭐라고 말 하더라도 이제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에는 어려웠다.

정말 엮어진 물에 대한 해결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워담을 수 있는 해결의 구멍이 트이지 않았다. 그들은 제 각기 신부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죽일 년! 이런 수가 있느냐는 것이 신부님을 만나 최후로 토해 낸 말들이었다.

사실 그런 푸념으로 상담의 막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달리 어떤 해결책을 신부님으로부터도 얻어 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신부님은 고개만 숙인 채 한숨만 내리 쉬었다.

“뭇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자매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고작 이 정도의 말이 신부님이 상담에 응한 위로의 말의 전부였다. 하지만 신부님의 양심은 괴로웠다. 가슴에 급격히 밀어닥친 통증을 진정시킬 수 없는 아픔을 신부님을 견디어 내기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집을 벗어나 자취를 갖추기 바로 전날, 그녀는 미사가 끝난 후 고해소로 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청했다. 그 때 그녀는 긴 얘기를 늘어 놓치는 않았지만 지금 고백을 마치면 즉시 서울을 떠난다는 말을 신부님께 고했었다.

“신부님 죽고 싶을만큼 괴롭습니다. 오죽하

면 이런 짓을 하고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신부님, 이 죄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부님…….”

그녀는 그 다음 말을 한 동안 잊지 못했다.

나는 그 때 그녀의 말을 묵묵히 기다렸었다. 그녀의 다음 말이 어떤 내용의 말인가에 따라서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해 가름할 판단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신부님 보속을 내려 주십시오.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들의 아픔에 비해 천배 만배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속을 이 가없는 저를 위해 내려 주십시오.”

나는 그녀에게 보속을 주기 전에 그녀가 서울을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를 물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자기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급선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자리가 정해지면 남편에게는 알릴 작정이라고 말했었다.

그것이 그녀가 나를 찾아와 고해소를 벗어날 때까지 나에게 들려준 고백으로써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진 줄거리였다.

나는 같은 교우들의 돈을 빌려 되돌려 주지 않고 야간도주하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통스런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생각하고는 그녀가 저질은 죄에 앞서 그녀의 처지를 치근하게 여겼었다.

정말 사제의 입장으로서의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성의 판단으로서는 패썹스럽고 원성을 사기에 마땅하며 간접 살인죄를 초래할 수 있는

죄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자기가 저질은 일에 대한 잘못을 모면하고자 남을 울리고 몸을 숨기려는 이 행위는 어떤 각도에서든 올바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감성의 판단에 의존해 볼 때는 가엾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고해소에 들어와 고백을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녀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마저도 그대로 진실로 믿었다. 간혹 진실에 벗어난 내용이라고 의문이 가더라도 내 자신이 사제이고 고해성사란 개념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동정이 갔었다. 하지만 어떤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되돌려 주어야 할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단 얼마라도 갚아 주는데 도움이 될 만큼의 수중의 돈이 있다면 성금 건네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사제가 무슨 돈이 있는가.

나는 감성은 결코 이성에 굴복하고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아프게 느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성의 가치보다는 감성을 내세우면서 산다고 가정할 때 전체를 위한 질서는 파괴되고 말지 않겠는가.

다수를 죽이고 소수를 살리는 것 보다 소수를 희생하고 다수를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선택 방법으로는 인식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성은 감성에 비해 잔인했다.

그녀가 살던 집을 두고 가족을 놓고 서울을 벗어나 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도 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과 비극의 늪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간파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날 밤 사제관으로 돌아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만에 쫓기는 자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 물었다.

결론은 그녀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길 밖에 없었다. 나는 고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는 그녀가 남은 여생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삶이 그녀에게 주어지기를 빌었다.

이리하여 그녀가 떠난지 보름쯤 된 날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고해소에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새로운 고통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아내의 소재가 확인되면 알려주겠노라는 말을 하여 그들의 아우성을 가라앉히고는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아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내가 있는 곳을 스스로 말할 용기가 죽어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입으로 더구나 사나이의 입으로 여자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하기에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이 이처럼 처절하게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워 죽겠다는 것이었다.

제발 자기 대신 신부님께서 아내가 있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의 부탁이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울먹였다. 나는 어찌해

야 좋을지 몰랐다. 처음으로 겪는 고해의 시간 속에서 경험해 보는 고통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사제의 힘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렇게 허약함을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필름 길이 막연했다.

“오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가 고해소를 나간 후에도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밤 사이 소리없이 내린 눈을 그와 그의 아내가 새벽부터 비를 들고 쓸던 그때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한 허약한 사제를 울리고 있는 것이었다. 과연 그의 말대로 그의 아내의 소재를 피해자인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구하기에는 고통스러웠다. 다시 말해서 그가 너무나 허약한 사제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셈이었다.

어쩌면 그는 사제란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신앙적 차원에서 사제의 약점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으로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그런 방향으로 결코 매도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속된 흐름으로 그를 그렇게 받아드린다면 나는 사제로서의 근본적인 자격에 흠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제는 사제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마침내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어두운 고해소에서 나왔다. 마음은 무거웠고 몸은 비틀거렸다. 간신히 사제관까지 왔다.

두 다리를 뺀고 누운채 그녀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남단(南端)의 한 작은 어촌을 생각했다.

사십이 못된 여자가 남의 돈을 챙겨 훗날 잘살아보겠다는 계획아래 낯선 한적한 섬에 몸을 숨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죽지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짓을 저질러야만 했었던 것인가?

나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방향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단정의 방향을 상실한 셈이었다.

나는 순간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의 제목을 상기했다. 「저것이냐, 이것이냐」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자꾸자꾸 무거워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잠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에 밀리기 시작했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보다는 사제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선(善)과 사랑으로 귀착될 수 있는 해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고 있다는 자신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괴롭운 시간의 흐름이었다. 나는 새벽을 거의 뜬 눈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야 눈을 간신히 붙였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여자들의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사제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힘껏 눌러대는 벨소리가

감고 있는 내 눈을 편히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이 눈을 뜨고는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너댓명의 자매님들이 우루루 밀어닥쳤다.

나는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보고 이른 아침부터 내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찾아 온 이유도 짐작했던 것이었다.

“신부님,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문밖에 세워 둘 수 없었다. 그들을 정중히 안으로 모셨다. 그들은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말을 끄내놓기 시작했다.

“신부님, 안나인가 뭔가하는 그 작자 말이예요?”

“그 작자가 뭐야?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해야 옳지!”

“글쎄, 간밤에 께히는데가 있어서 아침 일찍 그 집에 쳐들어 갔지 뭐예요. 요셉인가 하는 그의 남편에게 오늘만은 여편네의 숨은 곳을 대지않으면 이 집을 싼 값으로 팔아치워 빚 청산을 하겠다고 말했거던요.”

여인은 여기까지 말하고는 입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침을 닦았다.

“그랬더니요?”

하고 나는 힘없이 응수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예요. 요 보름전까지만 해도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자기 집인 것처럼 말하더니 오늘 아침 요셉인가 뭔가하는 그의 남편의 말은 세 들어있다는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는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죽여도 두번씩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그 말에는 어이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 라도 해서 그들의 뜨겁게 달아오른 분노를 가라앉혀 주고자 했지만 말이 입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신부님. 그건 그렇구요. 그 요셉의 말이 신부님을 찾아가면 신부님께서 무슨 말인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구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코너에 몰린 권투선수가 된 것을 느꼈다. 비참할 만큼 얻어막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질 순간에 처한 모습을 상기했었다.

정말 난처했다.

하지만 그가 고해소에 들어와 나에게 울먹이

며 한 말은 어디까지나 고해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진 고백이었다.

그것은 사제가 사제란 이름으로 지켜야 할 일이고 주검으로서도 어길수 없는 교회법(敎會法)인 것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이 그들의 입에서 총알처럼 쏟아져 나와도 병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렇다. 무슨 말이고, 몇 시간을 지껄인다 하더라도 그녀의 남편이 나에게 밝힌 그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드디어 긴 시련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해답을 갈구했던 덧으로부터 해방된 기분같았다. 그러나 어두운 마침표 입에는 틀림이 없었다.



##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어”

— 전 유럽의 수호자 성 베네딕도 아빠스와  
그의 동반 성녀 스폴라스띠까 동정의 지극한 사랑 —

최 홍 준 파비아노  
평협 홍보분과 위원장

공동영성, 또는 공동체 영성을 깊이 살고자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많은 이즈음, 초자연적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성인성녀들도 남녀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때 그 결실 또한 견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시대가 요구한, 저 위대한 가난의 영성으로 중세기의 교회를 풍요롭게 가꾼 아씨의 성자 프란체스코와 글라라 성녀라든지, ‘완덕의 길’로 나아간 16세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한 때 같은 시대를 살다 간 십자가의 성 요한, 이 밖에 여러 증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의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다. 2월의 성녀 스폴라스띠까 동정 역시 ‘수도회의 아버지’요, ‘서구 문명의 기초를 놓은 위인’이라고까지 칭송받는 베네딕도 성인의 동반성녀이다.

이탈리아 중서부, 로마에서 나폴리로 가는 ‘태양의 도로’를 따라 120km쯤 달리다 보면 까시노 읍이 나타나고, 이곳 까실리나 거리에서

원손편으로, 마치 우리나라 속리산 가는 말티고개처럼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자동차로 30분 가량 오르면 해발 157m의 몬떼 까시노 정상에 이른다. 바로 전 세계에 남자 수도원 170여 곳, 여자 수도원 300여 군데에 수사 9천 여명, 수녀 1만 3천 여명의 대가족을 거느린 성 베네딕도 수도회의 모원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수도원 경내에 들어서면 대 건축가 그라만떼 스타일의 회랑이 나타나고, 계단입구 왼쪽에 베네딕도 성인의 상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가 하면, 바른 편에는 스폴라스띠까 성녀가 두 팔을 벌린 채 다소곳이 순례자들을 맞이해 준다.

이들 두 성인성녀는 오누이 사이다. 480년경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라는 말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같은 정신으로 살다가 같이 죽어서 묻히고, 같은 성덕의 월계관을 썼으니 그런 의미에서 쌍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직하다.

오빠가 세속을 떠나 산 속에서 수도생활을 하자 스폴라스띠까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을 떠나 베네딕도의 뒤를 따랐다.

움브리아주 누르시아 태생인 베네딕도가 몬테 까시노에 정착하기 까지는 숭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열네살 때 로마로 유학을 갔으나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나태와 향락의 풍조를 보고 환멸을 느낀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엔피데로 가서 거룩한 사람들과 생활을 나누다가 자신이 일으킨 기적으로 일약 유명해지자 수비아코 산중으로 몰래 들어가서 은수생활을 시작했다. 3년 동안 로마노 수사가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빵을 이따금씩 가져다 줘서 겨우 요기를 하면서 홀로 기도와 묵상에 몰두했다.

어느날 정덕에 관한 유혹을 받아 환속할 생각도 들었으나 베네딕도는 옷을 벗고 가시덤불에 뒹굴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게 함으로써 이를 물리쳤다.

“그래, 나 혼자만의 수도생활이 최선의 길은 아닌 게야. 형제들과 더불어, 그렇지, 형제들과 더불어 청빈과 정결과 순명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멀지 않은 수도 공동체에서 몇몇 형제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 수도원의 원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을 원장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청을 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간청에 못이겨서 동굴을 떠나 비고바로 수도원의 원장에 취임한 베네딕도는 개혁을 선언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 규율이 문란하고 퇴폐의 징조가 위험하기 이를 데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타락에 젖은 수사들은 이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새 원장을

싫어한 나머지 마침내 살해 할 음모를 꾸미고는 식사 때 포도주에 독약을 섞어 이를 마시도록 했다.

늘 하던 대로 마시기 전에 십자 표시로써 강복을 하자 즉시 포도주 잔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 간계를 안 베네딕도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의 거룩한 덕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수비아코에는 열 두개의 작은 수도원이 태어나 날로 번창해 갔다. 그러나 호사(好事)에는 다마(多魔)라던가. 이를 시기한 사제 플로렌시오의 방해로 그는 로마 남쪽 까시눔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여기서 이교도의 성전을 부수고 몬테 까시노 수도원을 건설한 베네딕도는 수도생활의 근본이 된 유명한 〈규칙서〉를 썼으니, 이로써 서양 수도생활의 사부(師父)가 되었다.

오빠가 까시노 산으로 옮겼을 때는 누이 스폴라스띠까도 이 산 밑에서 다른 자매들과 고신극기(苦身克己)하며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다.

베네딕도는 젊었을 때부터 누이동생 스폴라스띠까와 의가 매우 좋았다. 누이도 동정이요, 수녀였고 훗날 수비아코의 한 수녀원 원장이 되었는데 해마다 한번씩 규칙적으로 오빠를 방문하고는 했다. 누이는 여자로서 수도원의 봉쇄구역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되는 까닭에 두 사람은 수도원 인근의 어느 집 응접실에서 만나고는 했다.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대화록〉에서 이들 오누이의 마지막 상봉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오빠와 누이는 지척에 살며, 그토

록 사랑하면서도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단 한번 만날 뿐이라니!

547년의 그날이 왔다.

이날도 몇몇 수사들과 함께 응접실에 도착한 베네딕도는 누이를 만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과 천국 사정 등 심오한 천상 도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나, 벌써 날이 저물었네!”

이날따라 손살같이 빨리도 지나가는 듯한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 스폴라스띠까는 웬지 오빠와 헤어진다는 것이 두렵고도 싫었다.

“어마, 저녁 진지 드실 시간이네요.”

땅거미가 어슴프레한 장막으로 이들 주위를 감싸 보호하는 듯 바깥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식탁 앞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또한 성스러운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동안에도 시간은 고지식하고 융통머리 없게도 계속해서 흘러만 가는 것이었다.

“착한 일의 도구들은 무엇인가?”

베네딕도는 자신이 쓴 수도원 <규칙서>의 제 4장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으로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끊어 버려라.

육체를 다스리라.

쾌락을 찾지 말라.

금식을 좋아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헐벗은 사람을 입혀 주라.

……아무 것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라…….”

스폴라스띠까는 이윽고 오빠에게 청했다.

“진정으로 간청하옵느니, 천상 생활의 기쁨에 대해 더 오래동안 논하기 위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제발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베네딕도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닌가.

“아니, 무어라고요, 누이? 수도원 밖에서 밤을 샌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빠!”

“누이의 청을 들어주면 수도원 규칙을 어리게 되는 것이요. 나는 수도원장으로서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밖은 비록 어두웠지만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별들이 사방에서 총총히 빛나는 좋은 날씨였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곧 억수같이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 베네딕도가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는 것이

아닌가.

“허허, 이럴 수가……?”

그는 본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일이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이를 쳐다 보았다.

“보세요, 오라버니. 제가 그토록 간청을 했는데도 오빠는 들어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청했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제 청을 들어 주셨어요.”

스폴라스띠까는 조금 전 오빠가 자기의 청을 쌀쌀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자 두 손을 식탁 위에 경건하게 올려 놓으면서 머리를 그 위에 살며시 내려뜨린 채 하느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털어 놓았다.

“허어, 이럴 수가……?”

스폴라스띠까 수녀가 기도를 마치고 식탁에서 머리를 일으키자 마자 이상하게도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베네딕도와 그를 따라왔던 수사들이 응접실에서 단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아란 번갯불이 사방에서 마구 번쩍거리고 천둥이 우르르르 탕탕, 요란한 소리로 천지를 진동시키며 마냥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제 가실 수 있으면 가 보세요. 저를 혼자 남겨 두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세요!”

방긋 웃음을 머금고 오라버니를 쳐다보는 누이가 천진스럽게 보였다. 베네딕도는 좋은 싫든 별 수 없이 누이동생과 다시 마주 앉았고, 남매는 영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으로 불리우기를 바라지 말고, 참으로 성인으로 불리어지도록 먼저 성인이 되라.

하느님의 계명에 매일 행동으로써 채워라.

순결을 좋아하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나쁜 열정을 가지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라.

나이 많은 이들을 공경하라.

나이 적은 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안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불목한 자와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육신상의 남매였을 뿐 아니라 영신상으로도 남매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베네딕도는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베네딕도는 자기 손아래 수도자들에게 수도규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그 규칙을 어기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스폴라스띠까는 훨씬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지식하게 규칙의 자구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누이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너무 조바심을 가진 베네딕도와는 대조적으로, 스폴라스띠까에게는 규칙의 자구보다 영적 대화랄까, 영혼 나누기랄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대화록>의 제33장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자기 오빠를 좀 더 오랜 시간 만나 보고자 열망한 여인이 그 오빠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하느님의 공의하신 뜻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리라는 것을 스펀라스띠까는 예감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후 뒤에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대화록> 제34장을 인용해 보자.

“다음날, 존경하올 스펀라스띠까 수녀님은 자기 수녀원으로, 또 베네딕도 성인은 자기 수도원으로 각각 돌아갔다. 이 때부터 3일이 지난 후, 베네딕도 성인은 자기 방에서 스펀라스띠까 수녀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와 같은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넋을 잃은 베네딕도 성인은 제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자 전능하신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그런 다음 수사들에게 자기 누이의 죽음을 알려면서 시신을 수도원으로 모셔 오도록 했다.

수사들이 정성껏 모셔온 유해를 베네딕도 성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무덤 속에 장사케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항상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덤으로써도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항상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요, 신학자인 발터닉이 베네딕도 성인 탄생 1500주년을 기념해서 1980년에 펴낸 <누르시아의 베네딕도>의 한 부분을 옮겨 본다.

“여성에 대한 베네딕도의 태도는 딱딱하지도 않았고 부자연스럽지도 않았다. 그는 젊었을 때 유모를 무척 따랐고, 그의 만년에는 스펀라스띠까의 얼굴이 정답게 우리 눈앞에 그려진다. 수도자는 결혼을 단념할 수 밖에 없고, 또 수도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수도자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인을 공경할 수는 있다. 예수께서도 독신으로 지내셨지만 결코 여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셨다. 당신 자신이 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셨고 당신에 대한 마리아 막달레나의 열렬한 숭경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셨으며 심지어 간음한 여인하고도 과격적으로 다정하게 이야기하셨다. 성애와는 무관한 여성관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이를테면 상호이해의 관계라 할 수가 있다. 베네딕도와 그의 누이동생 스펀라스띠까와의 사이가 바로 그러했다.”

스푼라스띠까가 특별한 아무 병도 없이 잠들듯이 세상을 떠난 지 40일도 채 되지 못한 3월 21일, 67년 전 생애를 통해 “기도하고 일하라”고 가르친 베네딕도 아빠스 또한 누이의 뒤를 따라 천국의 문을 두드렸다.

베네딕도 성인의 축일은 7월 11일이고, 스펀라스띠까 성녀의 축일은 2월 10일이다.

## 전 국 평 협 임 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평신도위원장	김 옥 균 (바 오 로)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지도신부	박 기 주 (미 카 엘)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 (서울대교구청 평신도 사목국)
고 문	이 창 복 (놀 베 르 도)	자) 782-0028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APT A-207
"	염 익 채 (요 한)	자)0343-29-7615	(430-06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샘마을 우방APT 504-1401
"	한 용 희 (암 브 로 시 오)	자) 387-0235 사) 713-9392	(120-100) 서대문구 홍은동 8-648
"	박 정 훈 (요 한)	자) 762-1350 F) 762-1350	(100-530) 종로구 혜화동 5-91
회 장	이 관 진 (베 드 로)	자) 784-7744 사) 3662-0077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609
부 회 장	한 흥 순 (토 마 스)	자) 542-5292 사) 961-4342	(135-100) 강남구 청담동 101-4
"	손 인 호 (프 란 치 스 코)	자)053-622-3223 사)053-255-2602	(705-036) 대구시 남구 대명동 989-6
"	김 영 진 (토 마 스)	자)062-363-4968 사)0636-450-2171	(502-234) 광주시 서구 월산4동 934-10
"	강 형 일 (루 도 비 꼬)	자) 542-9962 사) 275-8225	(135-010) 강남구 논현동 33-18
감 사	김 건 일 (요 한)	자)032-502-0028 사)032-866-4500	(402-110) 인천시 남구 연수동 우성1차APT 104-1801
"	박 선 홍 (마 지 아)	자)064-46-0100 사)064-42-1712	(690-170) 제주시 연동 311-4
사 무 총 장	박 찬 도 (이 보)	자) 868-5677 사) 521-3147	(151-011) 관악구 신림1동 1594-5
기 획 분 과 위 원 장	정 구 영 (요 한)	자)0342-704-0593 사)790-2903	(453-07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1 동부APT 114-1702
교 육 분 과 위 원 장	조 천 제 (베 다)	자) 357-1094 사) 364-7272	(122-071) 은평구 역촌1동 32-42
국 제 협 력 분 과 위 원 장	손 병 두 (요 한 보 스 꼬)	자) 553-9687 사) 780-8235	(135-280)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8-505
홍 보 분 과 위 원 장	최 흥 준 (파 비 아 노)	자) 652-5732 사) 5800-073	(158-056) 양천구 목6동 191 한신APT 106-1403
문 화 분 과 위 원 장	이 윤 자 (루 치 아)	자) 252-5915 사) 778-7671	(133-093) 성동구 금호3가 1331 두산APT 116-503
청 소 년 분 과 위 원 장	강 수 길 (그 레 고 리 오)	자) 424-2673 사) 565-3311	(138-172) 송파구 송파1동 118 가락아트빌라 102
사 회 복 지 분 과 위 원 장	허 기 구	자) 533-0640	(137-040)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APT 113-306
사 회 정 의 분 과 위 원 장	김 진 석 (실 베 스 드)	자) 591-2582 사) 512-4567	(137-049)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82-405
도 농 협 력 분 과 위 원 장	류 정 목 (사 도 요 한)	자) 364-5862 사) 512-1231	(120-013)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33

## 교 구 평 협 회 장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대학교구	류 덕 희 (모 세)	자)02-421-9398 사)02-576-5001	(138-170)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PT 5-505
광주대학교구	김 영 진 (토 마 스)	자)062-363-4968 사)0636-450-2171	(502-234) 광주시 서구 월산4동 934-10
대구대학교구	손 인 호 (프 란 치 스 코)	자)053-622-3223 사)053-425-3005	(700-036) 대구시 남구 대명동 989-6
대전교구	이 병 철 (마 리 오)	자)042-862-0808 사)042-220-7832	(305-3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EXPO APT 109-1604
마산교구	김 서 곤 (베 네 디 도)	자)0551-46-9456 사)0551-44-3118	(631-150)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303-5
부산교구	한 재 금 (베 드 로)	자)051-804-4044 사)051-514-2371	(614-070) 부산시 진구 연지동 172 대영일동APT 1008호
수원교구	박 인 환 (베 드 로)	자)0342-41-6769 사)0347-62-6041	(462-241) 성남시 증원구 금광1동 691-1
안동교구	권 무 영 (비 오)	자)0571-52-0903 사)0571-859-1961	(760-300) 안동시 송현동 영남맨션 A-202
원주교구	이 계 열 (아 오 스 덩)	자)0371-42-5500 사)0371-42-7315	(220-122) 원주시 태장2동 우성1차APT 102-1102
인천교구	김 건 일 (요 한)	자)032-814-4324 사)032-502-0028	(402-110) 인천시 남구 연수동 우성1차APT 104-1801
전주교구	문 치 상 (비 오)	자)0652-75-2244 사)0652-82-8833	(560-232) 전주시 인후2동 남양APT A-402
제주교구	박 선 흥 (마 지 아)	자)064-46-0100 사)064-42-1712	(690-170) 제주시 연동 311-4번지
청주교구	양 천 진 (에 드 워 드)	자)0431-66-1303 사)0431-55-1600	(360-240) 청주시 개신동 10 삼익APT 102-707
춘천교구	방 재 철 (대 건 안 드 레 아)	자)0361-262-2172 사)0361-241-3193	(200-170) 춘천시 퇴계동 한주APT 101-203
군중교구	최 동 환 (발 도 로 메 오)	사)02-796-2199	(140-023)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합참전력기획 참모부 공군 중장
	김 상 조(요 셉)	사)02-748-6630	총무 - 전력계획관실 대령

## 전국평협 단체장(\*상임위원 단체)

단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휘폴라레(남)	미켈레	자)02-332-1010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4
휘폴라레(여)	반나라이	자)02-232-2450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14-3
간호협회	이향련 (마리아)	자)02-814-7941 사)02-961-0307	(130-0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의대 간호학과
결핵사업연합회	김석좌 (베드로) 신부	자)0556-72-6333 사)0556-72-5607	(638-990)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 642
나사업연합회	이기남 (마르첼리노.M)	자)0596-73-2053 사)02-755-6311	(656-800)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성심인애병원
노동청년회	황연홍 (미카엘)	자)815-2483	(156-05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48-53
군중후원회	이관진 (베드로)	자)02-784-7744 사)02-3662-0077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609
맹인선교회	이미효 (요한)	자)02-451-0124 사)02-451-0333	(136-618)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800
미술가협회	최종택 (요셉)	자)02-324-5285 사)02-880-7493	(121-240)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6-41
병원협회	김대군 신부 (바드리시오)	자)02-590-1001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	·	·
*실업인회	장덕진 (요한)	자)02-815-3617 사)02-557-8222	(158-031) 서울 동작구 상도1동 501-3
아동복지 협의회	육잉애	자)0371-45-1489	(220-031)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23 가톨릭병원 상담실
언론인회	김희진 (안토니오)	자)02-562-6292 사)02-3604-124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원APT 5-305
여성연합회	박애주 (글라라)	자) 567-3234 사) 778-7543	(135-081) 강남구 역삼1동 670-12
의사회	박용휘 (미카엘)	자)02-337-0839 사)02-590-1551	(121-200) 서울 마포구 동교동 210-24
중등학교 교장회	이석은 수사 (도미니코)	자)032-522-9863 사)032-762-7204	(403-020) 인천시 동구 화수동 21
*꾸르실료	유양수 (요셉)	자)02-594-0573 사)02-553-0313	(137-042) 서울 서초구 반포2동 경남APT 11-201
*레지오 마리아(서울)	강형일 (루도비코)	자)02-542-9962 사)02-275-8225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16
레지오 마리아(광주)	김생기 (보스코)	자)062-261-2666 사)062-227-7128	(501-090)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대주APT 112-705
*M. E	박상일(힐라리오) 남종자(마리아)	자)02-653-1571 사)02-547-9061	(157-030)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215
빈첸시오 아바오로회	임부빈 (바오로)	자)0346-64-6157 사)02-778-4476	(473-900)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428-1
M.B.W 추진회	송주석 신부 (안셀모)	자)032-546-0324	(403-052) 인천광역시 북구 계산2동 923-11
농민회	장경암 (레오)	자)0652-73-4106 사)042-573-4040	(565-860)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 전주교 전주교구 평협임원

직 책	성 명	본 명	전 화	주 소
총 재	이병호	빈 첸 시 오	85-0041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지 도 신 부	유장훈	요 셉	85-0041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회 장	황의옥	파 로	226-1814	전주시 평화동2가 평화주공5단지(가나약국)
부 회 장	엄익도	시 몬	221-3839	전주시 효자동1가 564-4(엄소아과)
	김형렬	바 오 로	72-6373	전주시 거성 경기장APT 가/503
	김연준	레 미 지 오	75-2127	전주시 진북동 우성APT 116/205
	고홍석	요 한	242-4709	전주시 호성동 LG동아APT 105/604
	이정자	글 라 라	74-5741	전주시 덕진동1가 1436-9
상 임 위 원	고신해	가 시 미 로	855-5069	이리시 인화1동 116(사해주단)
	고홍석	요 한	242-4709	전주시 호성동 LG동아APT 105/604
	민병부	스 테 파 노	84-2863	전주시 동서학동 264-4
	양순용	글 레 멘 스	33-3050	남원시 쌍교동 14-20
	엄광섭	바 오 로	74-5855	전주시 서노송동 660-51
	이명행	요 셉	87-9223	전주시 전동3가 87-1
	장현순	루 가	856-6600	익산군 황등면 시서
	조윤식	요 한	547-2717	김제시 요촌동 293
	한상갑	바 오 로	223-4523	전주시 삼천동1가 광진궁전APT 7/707
	함영태	아 오 스 딩	61-5542	군산시 나운동 770-8
감 사	이영래	요 셉	84-5600	전주시 동완산동 2가 376-2
	황희상	F. 사 베 리 오	84-5694	전주시 서완산동 2가 76-5
사 무 국 장	김웅택	바 오 로	241-6789	전주시 금암동 632-63 정화APT 나동 106호
사 무 국 차 장	한귀석	바 오 로	223-7969	전주시 효자동 1가 552-2
	권영옥	다 니 엘 라	88-0181	전주시 효자동 1가 37-7
기 획 부 장	오중원	아 오 스 딩	76-1682	전주시 진북동 현대APT 305
청 소 년 부 장	한귀석	바 오 로	223-7969	전주시 효자동 1가 552-5
연 구 부 장	이태영	대 건 안 드 레 아	223-1445	전주시 효자동 광진진주APT 3/201
사 회 복 지 부 장				
전 레 부 장	이주철	야 고 버	82-0845	전주시 서서학동 51-3(3층) 3/1
교 육 부 장	함권술	다 미 아 노	241-1462	전주시 호성동 우신APT 2/408
여 성 부 장	권영옥	다 니 엘 라	88-0181	전주시 효자동 1가 37-7
선 교 부 장	이중호	디 모 테 오	212-6686	전주시 팔복1가 거성APT 4/302
홍 보 부 장	정지영	요 셉	86-1718	전주시 인후동2가 754 현대APT 101/806

## 청주교구 평협 상임위원

직 책	성 본 명	주 소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고 문	박 종 구(베 드 로)	청주시 내덕동 296-18	(0431)223-0892	
회 장	양천진(에드워드)	청주시 계신동 10. 삼익A 102-707	66-1303	55-1600
부 회 장	경한석(이오스딩)	청주시 우암동 327-17	223-1463	
	오장수(원선시오)	청주시 사직 2동 604-66 6통 2반	64-2345	53-2000
	권 명 자(로 사)	청주시 서운동 33-6 6/1	223-0502	
사무국장	변광수(암브로시오)	청주시 율량동 럭키A. 3동 605호	212-1151	
총무부장	노병천(라우렌시오)	청주시 미하동 삼익A. 1동 906호	223-4920	63-3576
교육부장	권 수 한(라 파 엘)	청주시 개산동 삼익A. 105동 604호	66-7433	61-2287
선교부장	박 명 순(미 카 엘)	청주시 통명동 90-44 삼정A. 1동 402호	62-9387	61-8300~2
사회복지부장	최 남 권(루 수)	청주시 대상동 5번지 우성A. 108동 502호	56-3325	54-2265~6
여성부장	정 재 혜(보 나)	청주시 사직 2동 687-29	66-7892	
전례부장	박 찬 수(요 셉)	청주시 계산동 현대A. 102동 804호	274-8147	
청소년부장	강 신 철(시 메 온)	청주시 대덕1동 683-11 우성A. C/406	53-1990	
가정부장	신 남 철(요 셉)	청주시 수곡동 68-20	68-7778	
	민 순 흥(마 리 아)			
	장 원(이 나 시 오)	청주시 금잔동 122-1 삼일A. 13/904	52-9845	
	전 성 규(미 카 엘)	청주시 사직 1동 265-7	55-5774	
	송문호(루노비꼬)	충주시 중의동 113-4	(0441) 847-4854	(0441) 62-3230
	봉 원 용(마 태 오)	진천군 진산읍 읍내리 52-2	0434) 33-2463	
	이 현 재(방 지 거)	음성군 감곡면 왕장 1리	(0336) 641-0870	
	이 율 섭(아오스딩)	보은군·읍 심산리 31-10 노비보은점	(0433) 44-2632	

## 안동교구 평협임원

직 위	성 명	본 명	본 당	전 화
지 도 신 부	권 혁 주	요 한 금 구	교 구 청	858-3114
회 장	권 무 영	비 오	용 상	52-0903
부 회 장	김 기 덕	사 베 리 오	목 성	57-6410
	장 영 위	그 리 스 도 폴	함 창	541-2721
사 무 국 장	박 영 조	페 레 리 오	목 성	52-8638
자 문 위 원	조 기 선	요 한	목 성	52-5614
	이 찬 우	도 마	계 립	535-2257
전례분과위원장	김 기 덕	사 베 리 오	목 성	57-6410
교육분과위원장	조 기 선	요 한	목 성	52-5814
선교분과위원장	이 찬 우	도 마	계 립	535-2257
행사분과위원장	변 일	시 문	예 천	654-2765
사회복지위원장	김 용 기	베 드 로	봉 화	73-0707
상 임 위 원	이 한 양	그 레 고 리 오	목 성	
	석 상 일	비 안 네	하 망	31-3370
	이 종 오	루 도 비 꼬	의 성	34-2907
	정 휘 준	야 고 버	남 성	34-6615
	황 진 섭	치 프 리 아 노	점 촌	555-5742
	김 승 기	바 오 로	후 포	787-9100
	지 영 대	바 오 로	점 촌	53-4149
레 지 오 마 리 애	서 명 중	비 오	목 성	
주 르 실 료	권 순 락	그 레 고 리 오	예 천	655-0225
	이 영 식	에 제 키 엘	의 성	34-2632

## 수원교구 평협임원

직 책	성명	세 레 명	본당명	주 소	우편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지도신부	김영옥	가 브 리 엘	교구청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0	440-150	(0331) 43-5003	
고 문	황백규	요 셉	조원동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2-9	440-050	(0331) 45-4204	
고 문	우건석	아우구스티노	지 동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현대A. 17-401	440-190	(0331) 211-7345	
고 문	조태로	간 디 도	석수동	안양시 석수동 93-6	430-040	(0343) 71-3874	
감 사	박원효	아우구스티노	북수동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가 130-2	440-022	(0331) 45-6180	
감 사	천승홍	요 셉	대학동	안산시 본오동 879-14 대산빌딩 303	425-180	(0345) 419-3030	82-4522
회 장	박인환	베 드 로	상대원	성남시 중원구 금광 1동 691-1	462-241	(0342) 41-6769	(0347) 62-6041
부 회 장	박봉규	이 나 시 오	호계동	의왕시 오전동 339-1 금호주택 나-102	437-070	(0342) 52-4330	(0342) 57-8281
총무부장	이문수	마 르 티 노	성남동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 A.7-408	462-110	(0342) 754-2703	(0342) 751-4131
조직부장	김영덕	디 모 테 오	대학동	안산시 사동 현대2차 A.411-106	425-170	(0345) 419-2822	(0345) 410-2621
조직차장	심창섭	바 오 로	상록수	안산시 본오동 신안 A.105-1001	425-180	(0345) 407-9096	(0345) 407-8287
재정부장	임봉규	바 오 로	상대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4404-3	462-122	(0342) 734-5919	(0342) 43-9975
교육부장	박태홍	안 드 레 아	장내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우성A.110-105	430-030	(0343) 49-0734	(02) 511-3766
여성부장	유복희	아 네 스	분 당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청구) 610-405	463-030	(0342) 703-1810	
여성차장	이정숙	젬 마	권선동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A. 111-304	442-070	(0331) 214-4276	
홍보부장	김영숙	베 로 니 카	호계동	안양시 호계 1동 991-1 삼신 A A-202	430-081	(0343) 53-7683	
홍보차장	안태웅	박 오 로	조원동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48-8	430-302	(0331) 255-4634	253-6395
행사부장	김도선	베 드 로	조원동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03 동신A. 103-105	441-111	(0331) 212-4922	
사회부장	정형주	테 오 도 르	신흥동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 104-1502	461-160	(0342) 732-2038	735-3133
사회차장	이준혁	요 한	조원동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46-1	440-200	(0331) 251-0940	254-3131
청소년부장	이무송	시 메 온	서둔동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A. 5-1202	441-100	(0331) 291-8520	(02) 579-5551
청소년차장	김남수	에 로 니 모	북수동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A. 407-1102	440-190	(0331) 38-5181	(012) 212-1806
선교부장	김석환	베 드 로	세류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60 21/4	441-110	(0331) 221-0077	(0331) 290-6484
전문위원	양성일	프 란 치 스코	산 본	군포시 산본동 백두 한양A. 998-605	435-047	(0343) 96-0743	
간 사	김은경	젬 마	매교동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93-22	441-113	(0331) 39-9274	

## 제주교구 평협 상임위원

1995. 2. 현재

직 책	성 명	본 명	주택전화	직장전화	본 당
회 장	박 선 홍	마 지 아	46-0100	42-1713	신 제 주
부 회 장	김 경 환	분 도	58-3779	56-5913	중 앙
"	강 성 현	바 드 리 시 오	62-8773	62-2793	서 귀 복 자
감 사	오 태 용	요 셉	22-5388	58-1001	중 앙
"	박 성 남	요 한 보 스 꼬	33-3200	33-6400	서 귀 포
총 무 부 장	양 보 현	시 문	22-3675	55-6970	중 앙
교육부장	김 항 원	아 타 나 시 오	42-9087	54-3242	신 제 주
조직부장	현 성 모	요 한	52-8515	87-2331 58-8242	광 양
봉사부장	문 후 경	다 니 엘	58-8964	56-3763	동 문
섭외부장	강 상 우	안 드 레 아	53-7892	011-691-8792	서 문
출판부장	이 광 언	보 나 벤 두 라	46-1211	43-8883	신 제 주
여성부장	강 정 차	가 밀 라	22-5732	56-1145	중 앙
사무국장	오 주 영	아 오 스 디	52-6341	51-0415	동 문
출판위원	김 원 민	골 립 바 노	46-1221	50-2250	서 문
"	김 영 환	베 드 로	58-9835	55-4213	"
고 문	현 임 중	스 테 파 노	22-3189	22-2445	"
"	여 중 환	이 나 시 오	55-2651	52-8880	광 양
"	김 창 유	아우구스띠노	22-3355	82-1123 53-1418	광 양

**한 국 평 협**      통권 제 33 호

---

발 행 일 / 1996년 2월 24일

발 행 인 / 이관진 베드로

편 집 인 / 서울평협 홍보분과 위원회

편 집 위 원 / 최홍준·김영걸·김송현

사 식 · 인 쇄 / 도서출판 **오늘의 말씀**

☎ 277-4776 · Fax 268-7007

---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서울 ·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층

☎ 777-2013, 757-7851, 771-7600    교)2454·2455, Fax 778-7427

